

8
2020

VOL. 290

한인뉴스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Galaxy Note20 | 20 Ultra



Pre-order Now*

6 - 19 August 2020

Buy Galaxy Note20 Ultra 512GB/256GB

Buy Galaxy Note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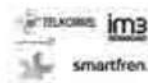
Get e-Voucher **Rp2.599.000**
to purchase **Galaxy Buds Live**



Get e-Voucher **Rp2.399.000**
to purchase **Galaxy Buds+**



Bank Cashback **up to Rp1.000.000** • 0% Installment **up to 24 months**



Customer Service: 0800-312-8888 (bawalah pulak) (021) 5499-7777 (hunting)

www.samsung.com/ID

[Samsung Indonesia](https://www.facebook.com/SamsungIndonesia)

[SamsungID](https://www.instagram.com/SamsungID)

[SamsungIndonesia](https://www.youtube.com/SamsungIndonesia)

[Samsung Indonesia](https://www.tiktok.com/SamsungIndonesia)

온 가족의 **청정 라이프** 웅진코웨이로 시작하세요

OMBAK CHP-7310R

냉온 RO 정수기
월 Rp. 500,000 / 36개월

제품 · 서비스 · 가격 문의

- ☎ (021) 5086 0419
- ☎ 0812 8825 6357
- ✉ cowayid@coway.id
- 🌐 coway_id



STORM AP-1516D

15 평형 공기청정기
월 Rp. 270,000 / 36개월

대한민국 NO.1 브랜드
코웨이를 인도네시아에서도
만나보세요.

한국산업 브랜드 파워 1위

- ✓ 정수기 부문 21년 연속 1위
- ✓ 공기청정기 부문 17년 연속 1위



36개월 동안
한 잔의 물, 한 숨의 공기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 ✓ 2개월 1회 방문 서비스
- ✓ 제품 설치 · 위생 관리 서비스
- ✓ 필터 교체 · AS 서비스

heart
service

건강한 삶을 설계하는
코웨이 헬스플래너,
한국인 판매인을 모집합니다.

- 헬스플래너 지원 문의
- ✓ cowayid@coway.id
- ✓ (021) 5086 0419



A human hand is positioned at the top, and a silver and black robotic hand is at the bottom, both reaching towards a central black circle. The background is a dark blue with glowing blue circuit patterns and light spots.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Pioneering Exploration and Production of
Oil and Gas in West Madura Offshore
Since 1981*



대한민국 해외자원개발의 선구자!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유전개발 업체로
인도네시아 마두라광구 탐사,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KODECO ENERGY

Talavera Office Park 10th fl. Jl. Letjen TB Simatupang No. 22-26
Jakarta 12430 T +62 21 2765 1559 E admin@kodeco.co



마론강/ Sungai Maron terletak di Kecamatan Pringkuku, sekitar 40 Km dari pusat Kota Pacitan, Jawa Timur.

contents

2020. 08. 통권 290호

- 07 인도네시아 라이프 No.8 - 대한민국 구석구석 <황유경>
- 08 논설위원칼럼 - 치명적 오판 <김문환>
- 11 동포사회 속 보석들을 만나는 기쁨 <배동선>
- 13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수석부회장단회의 열어
- 14 신임 박태성대사 인사말
- 16 이코노미 인사이트 - 홍콩, '항기로운 항구'의 그리운 옛향기 <황준규>
- 18 배동선 작가의 인도네시아 현대사 31 - 반란의 시대
- 22 뉴스브리핑 <자타르타 경제신문>
- 26 꽃창춘 프로젝트 8탄 <김승욱>
- 28 두 개의 시선 - 빼찌 <헬른>
- 30 자카르타 맛집탐방 - Twelve Chinese Dining <주윤지>
- 32 나 바 수 <민선희>
- 36 패션디자이너가 되려면 <김서연 편>
- 40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공동체 문화 <주강현>
- 42 인도네시아를 떠나며 <김창범>
- 44 행복에세이 - 'Ya,Udah' <하승창>
- 47 A STAR IS BORN <편집국>
- 48 인도네시아 법률 해설(288) <이승민>
- 50 제 4회 적도문학상 수상자 발표
- 52 신간소개 'SETAN PESUGIHAN'
- 54 내가 본 인도네시아의 이슬람문화 <최재원>
- 56 위풍당당 김운하여사 <박미소>
- 59 코이카가 인니에 지원한 국민신문고
- 60 세균이 득실득실한 의외의 물건 4가지 <권순일>
- 63 Pancoran 사람들 No.20 <편집국>
- 66 생활정보

월간 한인뉴스 8 2020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김문환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표지/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여름 방학 맞이 한국인들이

[대한민국] 구석구석

숨은 힐링 여행지 찾기

양평 오르다운

치악산 둘레길
강원도 원주시 위치

구룡의 전설따라 걷는 명품여행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탁 트인 여행지를 찾아서 가게 된 강원도 원주시의 치악산 둘레길. 이 둘레길은 등산로, 셋길, 입도, 독길, 옛길, 마을길 등 기존의 길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길도 내고 다듬어 치악산 자락을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한 '명품 도보 여행길'입니다. 2주간의 자가격리를 끝내고 처음으로 향했던 여행적인 만큼 오랜만에 시원한 바람도 맞으며 자연이 주는 행복에 흠뻑 젖을 생각에 설렘했습니다. 처음엔 곤란 따라오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힘들다고 아우성쳤지만, 짧지 않은 둘레길 산책을 마치고 주린 배를 달래가며 먹었던 치악산 한우고기에 아이들 얼굴 가득히 하회탈 웃음이 번졌습니다. 소중한게 보전된 자연을 눈으로 확인하고 역사와 문화, 생태를 체험하며 우리나라 명품 한우도 맛볼 수 있는 '오감 만족 여행'이었습니다.



양평 오르다운
경기도 양평군 위치

청계산 자락의 복합문화공간

서울 근교의 두불머리, 세미원 등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말마다 찾는 양평에 또 다른 힐링 문화공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오르다운'.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듯이 청계산 자락을 오르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곳입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양평 청계산에 오르면 행복과 건강이 다 온다는 뜻으로 우리말 '오르다'와 다 온다는 '다운'의 우리말 합성어라고 합니다. 청계산 자락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그대로 담은 오르다운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함께 가신 부모님들은 전통 한옥의 수려한 자태에 연신 감탄을 자아내셨고, 아이들은 곤충박물관과 식물원, 힐링 숲을 둘러보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카페 산(Cafe Sann)
충북 단양 위치

하늘, 산과 맞닿은 카페

이정표를 따라 자동차로 구불구불한 산을 오르면 도착하는 충북 단양의 카페 산(Cafe Sann). 시야가 탁 트인 산 정상에 서면 코로나로 생활 환경이 제한되어 답답한 마음을 단박에 날릴 수 있습니다. 요즘 SNS에서 단양의 최고 핫 플레이스로 뜨는 카페 산의 야외에서 찍는 인증 샷은 필수! 바로 옆에는 패러글라이딩 체험장이 있어서 파란 하늘을 수놓는 압록달록한 패러글라이더를 구경하는 것은 또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글, 편집디자인 - 황유경 (삼월공작소 운영자)



《논설위원 칼럼》



옆집 담을 뛰어 넘어 탈출하는 나수피온 장군.
부인이 총상을 입은 둘째 딸을 안고 있다. (모형)

치명적 오판



김 문 환/논설위원

디-데이가 임박한 9월 29일 납치 대상자 명단에 들어있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경계 대상인 수하르토 장군의 처리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수뇌부는 세 갈래의 가능성을 상정하였다. 수하르토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예우 문제, 둘째 그가 찬동하거나 방해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경우, 셋째 그가 거사를 적극 방해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라뎀(Latief) 대령은 그날 저녁 부부동반으로 수하르토 장군의 자택을 찾았다. 수하르토는 우익장군 진영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내색을 비쳤으나 핵심적인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일단 자리를 물러났다.

수하르토에 대한 결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혁명 수뇌부에 의해 등을 떠밀린 라뎀 대령은 거사 5시간 전인 9월 30일 저녁 10시 반 가똥 수브로또 육군병원에서 30분간 재차 수하르토 장군을 만나게 된다. 이때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두 사람 간의 비밀로 간직되어 왔지만 후일담을 통해 흘러나온 대화 내용은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었다. 수하르토는 후일 한 서방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라뎀 대령이 자신을 찾아온 목적은 사전 탐색을 통해 내가 그들의 거사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면 자신의 아들 병세를 더 악화시켜 자신이 방해 공작에 개입할 틈을 주지 않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신에게 직접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찾아왔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냥 돌아갔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반면 수하르토 대통령이 하야한 직후인 1998년 5월, 호주의 역사학자인 그렉 풀그레인(Greg Poulgrain)이 자카르타 찌삐낭 형무소에 수감 중인 라뎀을 방문하여 나눈 최초의 옥중 대담에서, “9월 30일 저녁 시간 가똥 수브로또 병원에서 막내 아들 또미를 병간호하고 있는 수하르토를 찾아가 다음날 거행될 거사 계획을 설명하자, 수하르토는 이의를 달지 않고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 고 실토하였다.

9월 30일 자정이 다 되어 작전 본부로 돌아 온 라뎃 대령이 보고를 마치자, 수뇌부는 수하르토 장군이 거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도 않거니와, 그렇다고 반대도 하지 않을 것이란 결론을 내리고 다음 단계의 행동에 돌입한다. 10월 1일 새벽 2시 대통령 경호실 운똥 중령 직속 부하인 둘 아립(Dul Arief) 중위가 지휘하는 60여 명의 경호실 대원과 기타 지원군으로 이루어진 7개조의 납치 특공대는 뿐독 그데(Pondok Gede) 루방 부아야(Lubang Buaya) 지역에 집결하여 출동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렇다면 혁명 수뇌부가 이러한 결론을 내린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당의 특수국장이며 비밀공작을 책임지고 있던 샴(Sjam)은 1950년대 인도네시아 사회당원으로 활동할 당시 족자카르타 주둔 제10여단장이던 수하르토 중령 자택을 자주 방문하였으며, 지금 마지막 순간에 총대를 메고 수하르토 장군을 만나 의중을 타진하고 있는 라뎃 대령은 서부 이리안 무력침공 당시 수하르토 사령관의 정보참모였고, 쿠데타 군사작전 책임자인 운똥(Untung) 중령도 서부 이리안 작전 당시 수하르토 사령관이 지휘하는 전략사령부(KOSTRAD)의 최전방 대대장이었다. 특히 1964년 운똥 중령이 중부자바 꺼부멘에서 결혼식을 올릴 때 수하르토 장군이 군용차를 타고 자카르타에서 장거리를 달려갈 정도로 상하관계가 끈끈하였다. 그를 대통령 경호실 대대장으로 수카르노에게 추천한 사람도 수하르토였다. 이렇게 수하르토와 쿠데타 주체세력간의 각별한 관계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납치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납치 특공대가 출동을 준비하던 같은 시각인 10월 1일 새벽 2시, 1,500여 명의 혁명군 가운데 3개 중대는 모나스 광장 인근에 소재한 국영라디오방송국(RRI)을 점령하고 또다른 3개 중대는 전신전화국(TELKOM)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7개조의 납치특공대는 뿐독 그데 지역에 집결 후 납치대상자들 각각의 사택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다. 새벽 4시 행동개시 시간이 되자 제1목표인 나수띠온 장군은 구사일생으로 다리에 총상을 입고 옆집인 이라크 대사관 담을 넘어 탈출하였지만 전속부관인 덴데안 중위가 나수띠온 장군으로 오인되어 피살되었고, 5살짜리 양녀 이르마도 총상을 입고 5일 후에 사망하였다. 그리고 비슷한 시간대에 아흐맛 야니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6명의 고위급 장성들이 희생되었다. 10월 1일 아침이 밝아 오자 국방부장관인 나수띠온 장군의 체포에는 실패하였고,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판단되었던 수하르토 전략사령관은 특전사령관 사르위 에디 위보위 대령, 반둥 실리왕이사단 참모장 수다르소노 준장, 자카르타 경비사령관 우마르 소장 등을 규합하고 있다는 정보가 흘러 들어오자 쿠데타 수뇌부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패닉상태에 빠져 들었다. 결과적으로 치명적 오판을 저지른 것이었다.



동포사회 속 숨은 보석들을 만나는 기쁨

글: 배동선(한인100년사 편찬위원)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였던 1980년 상반기 광화문과 정동 일대에 자욱하던 매캐한 최루탄 가스도 경희궁터를 둘러 심어진 미류나무 울타리를 넘어 교실까지 흘러 들어오진 못했다. 그리고 그해 2학기부터는 강남으로 등교했다. 학교가 이사한 것이다. 당시 복부인들 발길에 그 동네 집들 문턱이 이미 여럿 닳아 없어졌지만 요즘같이 세련된 불야성 분위기는 아직 아니었다. 새로운 환경에서 고교시절의 후반부를 시작하던 우리들에게 수학선생님은 콧잔등으로 흘러내리는 두꺼운 안경을 연신 밀어 올리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6.25때 서울 살다 시골 깡촌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게 여기 방배동이었어.” 교실은 단번에 웃음바다가 되었다.

작년에 한인사 편찬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 중반을 지날 즈음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편찬위가 이 시간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리며 창궐하던 감염병이 못지않은 파괴력을 발휘한 것이다. 모름지기 자신의 출현 전후로 세상과 시대에 경계선을 긋는 것은 예수님 정도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 코로나-19

의 위력은 실로 가공할 만하다. “그래도 9월 20일 한인사 출판기념회 일정은 예정대로 가야 합니다.” 팬데믹 와중에 다들 마스크 쓰고 모인 편찬회의에서 위원장을 겸한 한인회장님의 조곤조곤한 말씀에 마음이 숙연해졌다.

나는 한인사에서 정부기관, 공기업과 민간단체들의 집필을 맡았다. 대부분 모기업으로부터 발령을 받아, 또는 창업이나 사업확장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돈 벌러, 일하러 온 우리들의 한인사회 역사가 기업진출사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으므로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관-단체들을 새삼 다시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은 다분히 보조적 성격이 강했다. 그건 내 성향에 딱 맞았고 교민사의 핵심은 가장 역량있는 다른 사람들이 맡았다. 돌이켜보면 난 늘 누군가, 무언가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데에 능했고 확실히 조연이 체질이었던 것 같다. 내 인생인데 말이다.

수많은 기관-단체들과 연락하고 인터뷰하면서 새삼 느낀 것은 이 시기에 우리 모두 비슷한 어려

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였다. 어떤 식으로도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찾아가 본 사무실 입구에 '채택근무 중' 이라는 안내문을 발견한 것도 여러 번이었다. 대면 또는 서면으로 인터뷰한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대부분 단체들의 모임과 행사들이 중단되거나 연기되고 있었다. 당연한 일이다. 내 딸 결혼식은 이 난리에 떠밀려 두 번 연기됐다.

하지만 멈추거나 미뤄지지 않는 것들도 있었다. 대부분 기업과 개인의 소득이 줄어 지갑을 닫고 지출을 줄이는 시점에 현지 구호활동 일선에 선 이들은 더욱 스스로를 한계에 밀어붙이며 빈민들과 맞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더 이상 대면접촉이 허락되지 않아 배식 봉사를 나가지 못하게 된 클라빠가딩의 해피밥퍼센터에는 오히려 빈민학교의 교사들이 픽업트럭을 몰고 와 준비된 물품들을 실어 각 가정에 전달했고 수라바야 한인교회도 매주 금요일 도시락 200개씩을 나누던 활동이 여의치 않게 되자 대신 라면을 나누었다. 일단의 땅그랑 주부들은 지난 14년간 한 주도 거르지 않았

던 봉사활동을 지난 5월 모금부족으로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힘을 내 한센촌 시타날라 마을에 6월부터 매달 거의 2톤에 달하는 쌀을 마련해 89개 가정에 나누고 있다. 이런 구호활동이 동포사회 구석구석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세태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어떤 것들은 오히려 시련 속에서 보석처럼 더욱 빛을 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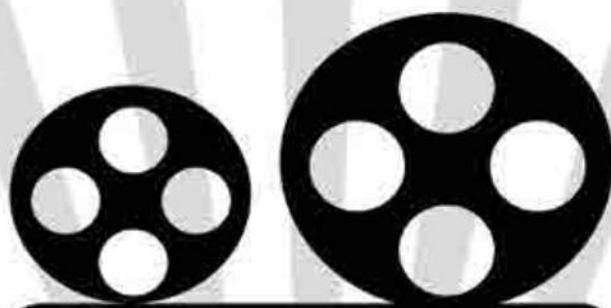
한인이주 100주년을 맞는 올해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 생활을 흔들어 놓을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고교 2학년 2학기 첫 날 낭만적인 경희궁터의 고즈넉한 교사를 떠나 처음 등교한 방배동 신축교사의 모든 게 낯설었던 것처럼, 코로나는 이 세상 많은 이들의 생명과 고통을 요구하면서, 한편 온몸에 돌기처럼 솟아난 팔을 내밀어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잡아 이끈다. 그 세계에서 우린 어찌면 산소통 둘러 맨 우주인 복장으로 무대에 올라 형형색색 방호복을 입고 참석한 동포사회 인사들의 축하를 받으며 한인 100년사 출판기념회를 하게 될 지도 모른다.



예전에 단 한 번도 겪은 적 없던 격변의 시기에 한인진출 100년을 맞는 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깊다. 한인사 집필을 위해 하필 대규모 사회적 규제조치(PSBB)가 시행되던 시기에 취재와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동포사회의 변화와 발전이 더욱 극적으로 대비되었고 그 와중에서 어려운 이웃을 품 안에 보듬은 이들에게서 코로나에도 결코 변치 않는 가치와 인류애의 여러 모습을 발견했다. 나보다 남을 더 중히 여겨 스스로의 이익을 쫓기보다 한결같이 이웃을 섬기며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는 이들을 보면 지금 우리들이 겪는 하찮은 반복과 갈등 따위 뭐 그리 대수랴 싶은 생각이 자연스레 들게 된다.



이름다운 공동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인도네시아 한인 이주 100주년 축하 UCC 공모전

2020.7.20(월) ~ 9.10(목)



공모주제

인도네시아 한인 이주 100주년 축하



시상

- 2020년 9월 17일(목) 한인회 홈페이지에 게시
- 대상(1팀/명) : 상장 및 상금 Rp 1000만
 - 최우수상(1팀/명) : 상장 및 상금 Rp 500만
 - 우수상(2팀/명) : 상장 및 상금 Rp 300만
 - 장려상(5팀/명) : 상장 및 상금 Rp 100만
 - 인기상 (1팀/명) : 상장 및 상금 Rp 300만



공모자격

한인 이주 100주년을 축하하는 주재국민 및
한인동포 누구나 (만10세 이상, 개인/팀 무관)



공모기간

'20년 7월 20일(월) ~ 9월 10일(목) 17:00



문의

사무국 +62-21-521-2515
(월~금, 09:00~17:00)
이메일 innehaninhoe@gmail.com



공모방법

한인회 홈페이지 통해 참가자 등록 및 영상물 업로드
영상물 : 1~5분 이내 분량



심사

[공개심사] 좋아요 클릭수(인기상) &
[내부심사] 심사위원 점수 합산

- 공개심사 : 2020년 9월 11일(금) ~ 15일(화)
한인회 홈페이지
- 심사기준 : 주제의 적합성 30%, 작품완성도 30%
작품내용 40%



주의사항

제출된 영상의 소유권, 저작권, 초상권 등 법률적
권리는 주최 측에 귀속, 타인과의 저작권 등
소유권 문제 발생 시에는 응모자 본인의
전적인 책임. 출품작은 한인회 이름의 영상
컨텐츠로 사용될 예정이므로 제작 시 유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수석부회장단 회의 열어



7월 17일,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박재한)는 수석부회장과의 회의를 갖고 2020년 하반기 한인사회 전반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된 여러 활동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진행하지 못한 각종 행사들과 앞으로 한인회의 주요행사에 관한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우선 코로나 19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인들과 돌아봐야 할 현지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련 정보와 마스크 나누기와 같은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한인회 사무국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상황이 여전히 호전되고 있지 않다는 점

에서 각종 시설 운영과 출입시 제한규정을 준수해야 함에 따라 한인회주관의 여러 행사에 전환 및 대비에 대한 계획을 제안하였다.

지난 해 7월 26일 출범한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편찬위원회의 집필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출판 기념식은 9월20일 한인의 날(가칭, 예정)에 열리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편찬위에서는 인도네시아 한인의 100년을 총망라하고 정리하여 기록하는 한인 100년사 출판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다. PSBB(대규모 사회계약) 전환 1단계가 지속될 경우 행사의 규모와 형식에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다각적인 준비에 많은 의견을 나눴다.

또한 한인회는 한인이 현지인과 함께 한인 이주 10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담은 UCC(User Created Contents) 공모전으로 대외적인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인회는 한인 이주 100년을 축하하며 후세에게 자긍심과 비전을 제시 하는 한인의 날 축하 행사에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여러 채널을 통해 유도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찌까랑 한인방 개소식

지난 7월21일 화요일 찌까랑에 한인방 개소식을 찌까랑 지역 한인회 임원들과 지역 단체 회장님을 모시고 개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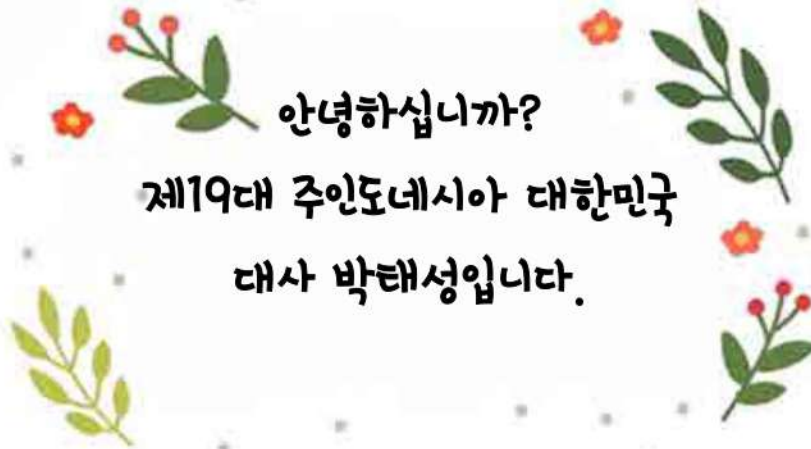
개소식 장소는 원래는 21일 오픈한 한인방에서 진행 하려고 하였으나 PSBB관계로 집회 불허로 인하여 고주몽 식당에서 조촐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찌까랑 한인방은 찌까랑지역 한인사회의

사랑방 역할(합창, 악기연주, 스포츠관련 등 여러 가지 취미활동의 공간으로 활용)과 새롭게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제반정보를 제공하고 기진출기업과의 연결을 주선하며 한글학교, 인도네시아 수업과 더불어 인도네시아현지인에게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문화의 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제공: 김일순)

0821 2482 5099





안녕하십니까?
제19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박태성입니다.



먼저, 코로나 19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엄중 책임감을 느낍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수한 한국의 방역 모델을 적극 활용하여 보건 안전 분야의 영사 조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6천만명의 세계 4번째 인구 대국이자, 국민의 평균 나이가 29.9세인 젊은 나라로서 역동적인 성장과 발전이 기대되는 나라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인구, 면적, GDP에 측면에서 아세안(ASEAN) 10개국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 아세안의 주요 국가입니다. 동남아 지역의 유일한 G20 국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판차실라(Pancasila)의 정신으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하나로 단결하여 함께 전진하고 있는 '적도의 진주' 와 같은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국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하면서 양국 관계를 동남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로 격상시켰고, '한-인도네시아 공동 번영의 비전' 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8년 9월 한국을 답방한데 이어, 2019년 G20 정상회의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도 한-인니 정상은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정상간의 우의와 신뢰를 크게 다진 바가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 협상이 타결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이 비준되면, 양국은 단순한 무역투자 확대를 뛰어 넘어 G20 국가간의 전략적 경제동반자 관계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이차전지, 석유화학 등 첨단 부품소재, 방산 및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제휴와 협력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공유경제, 스마트 기술 등 디

지털 전환 및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의 미래 협력에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 입니다. 과학기술과 스타트업 분야의 투자와 제휴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것 입니다. 특히 현지에 진출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확충, 인적자원개발, 행정수도 이전 등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협력과 참여에도 적극 나설 것 입니다.

아울러, 음악, 드라마, 콘텐츠, 문화, 스포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협력 기틀도 공고하게 다져 나갈 것 입니다. 무역투자 중심의 협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양국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생활 분야에서의 공공외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동포사회와 현지 진출기업들이 공공외교의 동반자가 되도록 대사관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과 활발히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국 관계발전의 근간은 상호 신뢰와 상생발전입니다. 1973년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한 이후 지난 반세기 가까운 기간 동안에 거둔 양국 협력의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 상호 신뢰와 상생에 바탕을 둔 새로운 50년을 향한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우리의 신남방정책의 비전인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를 이 곳 인도네시아에서 실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과 함께 연대하고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양국 정상간에 구축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고위급의 소통과 교류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양국 청년들이 서로 친구가 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9년 기준 약 28만 명의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약 39만 명의 한국인이 인도네시아를 찾았습니다. 다양한 인적 교류사업을 확대하여 양국 국민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이 한-인니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포사회와 현지 진출기업들과 함께 하는 공관, 늘 현장과 함께 하는 공관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민 100년의 역사를 지닌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사회는 글로벌 한인 커뮤니티의 모범이고 자랑입니다. 안정되고 단결된 한인 사회는 한국-인도네시아 우호협력의 가교이자 우리 기업활동의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대사관은 우리 동포 사회의 보호와 지위 향상, 그리고 영사조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인도네시아 양국이 상생발전, 공동 번영의 선린우호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기업인, 그리고 재외동포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 박태성

홍콩(香港), '향기족은 항구'의 그리울 옛향기

-홍콩보안법에 대한 단상

글: 황준규 (신한은행 본부장)

얼마 전 신간도서를 소개하는 신문의 한 코너에서 설탕, 소금, 후추, 밀, 커피, 초콜릿 등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가루들로 인해 세계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서술해주는 한 서적에 대한 리뷰를 접한 적이 있다. 그리고 해당 리뷰를 읽는 순간 필자에게 떠오른 또다른 두 가루, 바로 '대마'와 '코카인'이다. 개인적으로 이 두 가루 또한 앞서 언급했던 가루들 만큼이나 19세기 이후 인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코카인'은 20세기 이후 북남미 대륙에서 검은 경제 메커니즘의 핵심으로 성장한 바, 지금보다 앞으로의 그 향방이 더 우려스럽다. 그리고 18세기 중국의 차와 도자기에 매료된 영국이 그 막대한 무역적자를 메꾸기 위한 방편으로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재배된 대마를 싱가포르에서 가공 후 중국전역으로 공급했던 아편은 결국 전쟁의 도화선이 되어 동아시아의 근대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된다. (참고로, 싱가포르 또한 영국이 인도네시아를 점령

한 네덜란드와의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인도와 중국의 무역 항로인 말레카 해협을 주도권을 갖기 위해 영국이 소유했던 동인도회사의 직원 스탬포드 래플스가 만든 항구도시이다.) 이렇게 영국과 중국, 양국 사이의 무역불균형으로 촉발된 아편전쟁에서의 패배로 중국은 영국에게 홍콩을 할양하고 상하이로 개방하며 지나간 나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렇게 싱가포르에 이어 홍콩과 상하이 등 동아시아 최대 항구도시를 손에 넣은 영국은 증기선의 개발과 맞물려 동아시아의 대형 무역을 주도하였고 영국의 상사들은 인류사에 전례가 없던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된다. 당시 거대 상사 중 하나인 페닌슐라엔 오리엔탈 직원 출신 토마스 서덜랜드가 설립한 은행이 바로 HSBC(홍콩·상하이은행)이고, 또다른 글로벌 최대 은행 SC은행(스탠다드차타드)의 모체인 차타드 은행 또한 당시 홍콩, 상하

이를 기반으로 한 무역업에 종사했던 영국인 제임스 윌슨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렇게 동아시아 무역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두 초대형 글로벌 은행의 기원은 양국의 무역 불균형이 초래한 가루전쟁, 아편전쟁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180년이 지난 지금 홍콩의 분위기가 다시 심상치 않다. 지난달 초 중국은 결국 홍콩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으며 당연히 홍콩시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그러나 보안법 실행 첫날 부터 홍콩경찰은 예전과 많이 다랐던 바, 물대포는 시민과 기자를 가리지 않고 조준해 발사했다. 법안 통과로 인해 중국은 이제 홍콩의 시위대를 중국본토로 데려가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새로 설치되는 홍콩국가안전위원회는 업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가 가능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홍콩의 회 및 법원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1997년 영국의 홍콩 주권 반환 이후 유지되온 일국양제 원칙이 근본적으로 더이상 실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최근 영국도 홍콩 범죄인 인도 중단을 시사하며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기는 하나 더이상 중국입장에서 영국은 더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2세기가 지난 지금 중국의 힘겨루기 상대는 미국으로 바뀌었다.

중국과 수년째 무역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미국은 금번 홍콩국가보안법을 빌미로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을 예고하고 있는 바, 전문가들은 홍콩 특별지위 박탈이 국제사회에서 홍콩의 전략적·상징적 지위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랜 홍콩의 번영은 서방과는 상이한 질서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중국과 외부 세계를 잇는 ‘회색 지대’로서의 매력에 바탕을 두었던 바, ‘중국화된 홍콩’은 이러한 홍콩 번영의 대전제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홍콩은 420개 이상의 펀드회사 입주하여, 싱가포르보다 그 수가 약 80개나 많으며 운용자산은 910억달러로 이는 싱가포르, 일본, 호주를 합친 펀드사 자산보다 큰 규모이다. 그러나 작년 까지 뉴욕, 런던에 이어 금융경쟁력 세계 3위 도시의 위상을 이어오던 홍콩은 작년 하반기 이후 계속된 금융기관의 이탈로 최근 발표된 순위에 따르면 싱가포르, 도쿄, 상하이에게도 뒤쳐졌다고 한다.



이렇게 홍콩의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사이 홍콩을 대신할 아시아 금융허브가 어딘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서울이나 자카르타는 후보에 없다. 금년 3월기준 서울의 경쟁력은 33위이며 심지어 자카르타는 60위권 밖이다. (사실, 현지금융당국의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관리를 생각하면 60위권도 과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여하튼 홍콩이 금융허브로서의 기능에 타격을 입으며 향후 약 1조달러가 이탈할 것 이란 예측이 있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싱가포르의 외화예치금이 작년 동기대비 3배이상 증가하였다는 뉴스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필자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왔던 2016년, 한해 동안 가장 큰 경제화두였던 텍스엠네스티 조치를 시작으로 이후 수년 간 목도해 온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기생경제 메커니즘 등을 통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도네시아가 (여러모로) 싱가포르의 경제발전엔 절대적인 기여를 해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던 바., 금번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탈 홍콩의 반사이익을 다시 한번 향유하는 싱가포르가 마냥 부럽기까지 하다.

‘영웅본색’, ‘천장지구’, ‘중경삼림’ ... 80~90년대 학창시절을 보냈던 이라면 열광하지 않을 수 없었던 수많은 홍콩 영화들. 영화 하나만으로도 홍콩은 당시 대한민국 모든 청춘의 로망이었다. 그리고 필자가 금융인이 되어 업무연수차 거주하게 되었던 홍콩, 반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과거 홍콩 영화의 정취를 느끼려 정말 부지런히 곳곳을 돌아다니고 현지인들을 알아갔던 기억은 십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그리고 당시 만났던 홍콩의 청춘들에게 느꼈던 무기력과 방황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요즘이다.

반란의 시대



Panzer IV

지난 호에 이어

하지만 10월 4일 RMS군이 매우 치밀한 전술작전을 펼쳐 하살과 떨라가꼬독에 진출한 정부군을 총반격하고 나섰으므로 305부대와 362부대는 모두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RMS군은 10월 7일에도 히뚜 지역까지 공격해 들어와 정부군은 해안가까이까지 밀려났다. 그러나 해안에선 인근 KRI 라자왈리의 함포지원과 항공기 공중지원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정부군은 그곳 방어선을 기점으로 다시 반격에 들어가 하살 방면으로 추격해 들어갔고 RMS 잔당들은 떨라가꼬독과 두리안빠따 지역에서 정부군을 저지하려 했다. 당초 정부군은 상륙 후 4-5일 내에 암본을 함락시키려 했으나 예상보다 강한 저항때문에 부득이 작전일정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까윌라랑 사령관이 최전선까지 나와 전황을 직접 확인한 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즉각 암

본에 상륙, 점령할 것을 독려했다. 암본의 RMS군은 암본만 깊숙히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치 않았다. 까윌라랑 대령은 암본 남쪽 버구알라만에도 상륙을 지시했는데 이는 보충병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RMS반란을 진압하면서 여러 섬들을 거처온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사망자와 부상자들도 넘쳐나고 있었다. 병력보장은 어차피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스노빠띠 작전의 개시일이 11월 3일로 결정되었다. 결전의 날을 앞두고 정부군은 3개 그룹으로 재편성했다. 그 제1군엔 수르요 수반드리오 소령의 지휘 아래 백골 대대, 가자마다 352 대대, 수따르노 대대를 편성했고 제2군은 슬라멧 리야디 중령 휘하에 위랑 대대, 글롭파트 대대, 마흐못 대대, 파아(Faah) 분견대, 메단 포

병대, 팬저기갑부대, 제니 공병대를, 제3군은 아흐맛 위라나타꾸수마 소령 밑으로 5월3일 대대, 루카스까르파르쵸 대대, 뽀니만 대대를 편성한 것이다. 당연히 리야디 중령이 주력을 담당했다.

11월 3일 작전계획에 따라 제1군의 352부대는 히뚜 지역 왼쪽의 셋길을 통해 떨라가꼬독을 공격해 들어갔다. 그러나 교전 첫날 그들은 와넷 철교에 교착되고 말았는데 이는 RMS가 해당 지역을 더욱 견고하게 방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루스민 소령은 352부대원들을 독려해 소총에 대검을 부착하고 RMS 진지를 향해 돌격해 들어갔다. 이 치열한 백병전에서 양쪽 모두 심대한 사상자가 발생했고 두 시간의 사투 끝에 RMS군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결국 정부군이 와넷을 점령할 수 있었다. 352 대대는 1개 중대 병력을 잃었고 RMS군은 포로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 전멸했다. RMS군 역시 칼날같은 시퍼런 각오를 다지고 전투에 임했던 것이다.

352 대대와 동시에 히뚜 우측 셋길로 기동했던 수따르또 대대는 비교적 수월하게 전선을 돌파해 RMS군을 두리안빠따 지역까지 몰아붙였다. 이렇게 두 개 대대의 동시공격으로 정부군은 그날 오후 떨라가꼬독 지역을 확보했고 백골 대대는 그 배후에서 히뚜 지역에 남은 RMS 잔당들을 소탕했다.



암본에서 야전 작전회의중인 까윌라랑 대령과 리야디 중령(우측)

다음 날 아침 352 대대의 2개 중대가 떨라가꼬독에서 느거리나니아와 빠소라마 지역으로 들어가는 지름길로 기동했고 그 후 본대가 대로를 통해 두리안빠따로 이동해 갔다. 그들은 최대한 빨리 빠소-히뚜-라하를 잇는 삼거리를 확보해 정부군에게 밀려 퇴각하는 RMS 부대의 퇴로를 끊으려 했다.

한편 수따르노 대대는 하살에서 출발해 루마띠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도로를 따라 기동했다. 계획대로라면 루마띠가를 점령한 후 그들은 적이 집결해 있는 갈탈라 지역에 엄호포격을 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RMS의 강력한 저항으로 시간을 대지 못하는 동안 13시00분 제2군이 바뚜메라 지역까지 기동해 들어오고 있었다.

그날 새벽 02시30분 제2군의 슬라멧 리야디 중령은 계획대로 파아 분견대를 앞세워 바뚜공 인근 또이사뿌 지역에 상륙로를 열도록 하고 마흐못 대대를 빠소-느거리라마의 북쪽 방면으로 진출시켰다.

05시30분 파분견대와 마흐못 대대는 서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RMS군과 교전을 시작했고 서로의 거리가 좁혀지면서 급기야 치열한 백병전까지 벌인 끝에 파아 대위와 그의 부하들은 피를 철철 흘리며 바뚜공을 점령할 수 있었다. 이로써 이제 빠소 지역에 느거리라마, 바뚜공, 그리고 풀레후-와이따띠리 등 3개방면으로부터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마지막 한방으로 빠소를 함락시킬 준비가 된 것이다

클롭파트 소령의 돌격부대는 포격이 빗발치는 전선 최전방에서 악전고투 중이었다. 그들은 와이따띠리를 확보하려 했는데 RMS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4주 이상 교착상태에 빠졌다. RMS군은 야포부대의 포격지원과 기갑부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부군의 진군을 막았는데 그 과정에서 RMS와 정부군 양측의 야포부대, 기갑부대 등 중화기부대들끼리의 정면대결도 처음으로 벌어졌다. 기



슬라멧 리아디 중령과 수라카르타 시내에 서 있는 그의 동상

갑부대의 근접전에서 정부군은 탱크 3대를 잃으면서 RMS군의 팬저 6대를 파괴했고 포격전에서도 RMS는 크게 밀려 대부분의 장비를 버리고 도주하기에 급급했다. 산 중턱의 RMS의 진지와 지하은폐시설들도 하나하나 소탕되었다.

훗날 A. 룬도누우라는 작가가 집필한 HV 위랑의 자서전 ‘우리들의 초상’이라는 책에서 와이따띠리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의 치열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위랑부대는 와이따띠리에서 적군의 저항에 부딪혀 치열한 교전을 시작했다. 적은 자연적 지형 지물을 이용해 매우 전술적인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진지의 앞으로는 강이 있었고 왼쪽과 오른쪽은 험한 벼랑과 급한 경사지로 보호되어 있어 정부군으로서는 매우 극복하기 어려운 지형이었다. 게다가 RMS군은 옛날 일본군이 버리고 간 벽돌로 진지를 견고하게 구축했기 때문에 단번에 무너뜨릴 수도 없었으므로 우린 그 진지들을 하나하나 치고 들어가 소탕해야 했다. RMS군은 잘 무장되어 있었고 야포와 기갑부대의 지원도 받고 있었

으므로 거기서 처음으로 야포와 야포, 탱크와 탱크가 맞붙는 전투가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18시00분 해가 질 무렵 RMS의 강력한 방어선을 마침내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RMS군은 반격을 감행해 왔다. 그들은 기관총과 박격포, 그리고 팬저 탱크포까지 동원했지만 위랑 대대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군의 공격은 잠시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적의 월등한 전투력에 수세로 밀리면서 우선 방어에 치중해야만 했다.”

RMS군은 중화기도 다수 보유했던 반면 위랑 대대는 기본화기만 갖추고 있었으므로 화력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정부군의 공세가 수세로 돌아섰을 때 위랑 대대는 적 탱크포, 야포, 박격포의 쉬운 타겟이 되었고 인명피해가 늘면서 사기도 크게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야포지원과 기갑부대를 거느린 제2군의 클롭파트 부대가 합류하면서 상황은 다시 호전되기 시작했다.

와이따띠리의 야전상황은 이처럼 매우 급박했다. 버구알라만 해안은 도로에서 불과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었고 그사이엔 야자나무들이 자라 있

었다. 까윌라랑 대위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다.

“와이따띠리에서의 전투는 정말 버거웠다. 적들은 철통같은 방어작전을 펼쳤고 그 결과 우린 전혀 전진할 수 없었다. 우린 거기서 4주간이나 묶여 있었다. 와이따띠리의 일부 지역을 우리 손에 넣긴 했지만 적들은 나머지 부분을 내어주려 하지 않았다. 와이따띠리의 야자수들을 모두 포격을 맞아 부러져버려 마치 1943년 11월 태평양전쟁에서 미군이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던 타라와섬, 길버트섬을 떠올리게 했다.”

말루꾸의 RMS 반란에 맞서 전국에서 끌어 모은 병력을 이끌고 1950년 7월 17일 반란진압작전이 시작된 후 우여곡절끝에 암본 상륙이 시작되어 10월 3일 리야디의 부대가 알렉산더 에버트 까윌라랑 대령과 함께 반란군 수도인 뉴빅토리아를 점령하기 위해 전진했지만 맹그로브숲이 우거진 늪지대에서 그들은 정글카빈과 오웬기관총으로 무장한 RMS군의 강력한 저항과 변칙적 반격을 받아 한 달 이상 지체하면서 큰 인명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간신히 뉴빅토리아에 들어서면서도 리야디의 부대는 RMS부대에게 다시 공격을 받았다. 11월 3일 이미 격렬한 전투를 벌였고 이제 전투 마지막 날인 11월 4일에 접어들고 있었지만 RMS군의 저항은 더욱 맹렬했다. 훗날 TNI 육군소장으로 예편하는 하인픽터 위랑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암본 전투 마지막날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암본 시가전에서 우린 강력한 저항을 마주해야 했다. RMS군은 이미 동쪽 전선에서 밀리고 있었지만 기갑부대와 예상보다 많은 KST, 레드베레, 구 KNIL 부대 등 예비병력을 아직도 운용하고 있었다. 우린 실탄부족에 시달렸고 그래서 자주 곤경에 처하곤 했다. 하지만 슬라멧 리야디 중령이 그럴 때마다 우리들 사이에 나타나 사기를 북돋으며 독려하곤 했다. 내 부하들은 이미 2개 중대 이

상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상태였다. 적의 기갑부대는 아직도 맹렬히 기세를 떨쳤고 내 부하들 중 구석으로 몰린 1개 소대가 그들에게 꼼짝없이 전멸당하는 것이 보였다”

그날 탱크를 타고 전투를 독려하던 리야디 중령은 암본시내의 반군기지를 향해 전진하다가 저격수에게 피격당한다. 복부를 관통한 총상을 입은 리야디는 병원선으로 급히 후송되었으나 전선으로 되돌아가려는 그의 고집을 꺾기 위해 군의관들은 다량의 모르핀을 주사해야만 했다. 그리고 수술이 시작되었으나 리야디의 용맹도, 용량을 초과해버린 모르핀도, 리야디의 생명을 구할 수 없었다. 그는 그사이 너무 많은 출혈을 했고 내장 곳곳이 끊겨 나간 복부의 총상은 복구되기엔 너무 깊은 것이었다. 당차고 용맹스러웠던 슬라멧 리야디 중령이 오래도록 살아남았다면 오늘날의 인도네시아는 무척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단 한 발의 총탄이 젊은 영웅을 그렇게 쓰러뜨리고 말았다.

리야디 중령은 결국 사랑하는 신부 수라크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그날 밤 숨을 거두었다. 전투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말이다. 그날 정부군은 마침내 뉴빅토리아를 함락시켰다.

리야디는 시신조차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암본에 묻혔다. 그의 전공을 기려 많은 도로와 건물들이 그의 이름을 따랐는데 그중 5.8킬로미터에 달하는 수라카르타의 중앙통 도로가 대표적이고 인도네시아 해군의 프리깃함 한 척도 KRI 슬라멧 리야디라고 그의 이름을 붙였다. 해군군함이 육군장교의 이름을 따르는 것은 사뭇 이례적인데 어찌면 리야디가 해양학교를 나와 잠시 항해사로 일했던 경력을 주목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중령으로 전사했고 사후 육군준장으로 추서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韓 인도네시아에 마스크 62만5천장 지원... “긴밀히 공조”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KF-94 마스크 62만5천장, 50만 달러(6억원)어치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13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스크 62만5천장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날 50만장을 먼저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P)에 전달했다.

나머지 12만5천장은 한국 정부의 구매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전달할 예정이다.

김창범 대사는 전달식에서 “마스크는 인도네시아 의료인력 보호를 위한 것으로, 올해 4월 양국 정상간 통화의 후속 조치”라며 “앞으로도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양국 간에 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인도네시아 재난방지청에 분무형 소독기 300대(10만 달러)와 유전자 증폭 검사(PCR) 진단키트 3만2천200회 분량(40만 달러)을 전달했다.

이번 마스크까지 인도네시아에 총 100만 달러(12억원) 상당 방역용품을 지원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1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PCR 진단키트·소독기 이어 마스크까지 총 100만 달러 상당

를 고려해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무거워도 함께 짊어지고 가벼워도 같이 든다’는 인도네시아 속담을 인용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이 지원한 마스크는 자카르타의 코로나19 대응 지정병원을 포함해 각 지역 보건소 등 의료진에게 공급된다.

이날 전달식에서 재난방지청 측은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한다”며 “한국 정부의 지원이 양국간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7만5천 699명·사망자는 3천606명이다. [연합뉴스]

중앙은행 “경제 회복은 V자보다 완만한 U자형 될 것”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의해 타격을 받은 경제의 회복에 대해 당초 예상한 V자 회복보다 완만한 U자형 회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전했다.

중앙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이고, 급속한 경제 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고 예상보다 완만한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4월과 5월의 경제 활동은 매우 저조해 올해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의 실질 성장률이 4~4.8%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중앙은행은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여러 번 하향 조정했지만, 처음에는 경제의 V자 회복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주에는 감염자 수가 중국을 제치고 동아시아에서 최다가 되는 등, 코로나19의 유행은 수습의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여론조사 “조꼬위 대통령 코로나19 대책, 신뢰도 하락”

인도네시아 여론 조사 회사 인디카포르 뿔리덱 인도네시아(Indikator Politik Indonesia)가 이달 13~16일 실시한 조사에서,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에 대한 평가가 지난 5월에 실시한 조사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에 있다.

조꼬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52.6%로, 지난 5월 53.7%에서 1.1% 포인트 낮아졌다. ‘매우 신뢰한다’는 8.3%로 5월의 14%에서 5% 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22일자 현지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디카포르 뿔리덱 관계자는 21일 “조꼬위 대통령의 성과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1년 동안 약간 감소했지만, 최근 2개월간은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테라완 아구스 뿌뜨란또(Terawan Agus Putranto) 보건부 장관의 코로나19 대응을 ‘신

뢰한다’고 한 응답자는 36.7%로 5월의 48.4%에서 크게 하락했다.

또한 조사에서는 64.8%가 “대통령은 개각을 실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조꼬위 대통령이 6월 국무회의에서 각료들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을 54.7%의 응답자는 몰랐지만,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54.8%는 ‘대통령은 코로나19 봉쇄에 결과를 낼 수 없는 각료들에게 분노를 느꼈을 것’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긴급대책본부(태스크포스-TF)의 수장을 맡고 있는 국가재난방지청(BNPB) 도니 모나르도(Doni Monardo) 청장에 대해서는 평가가 높았고, 60.2%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5월의 55%에서 5% 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의 1,2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실시했다.

안파사리 고속도로의 브리기프-사왕안 구간 개통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남부와 서부자바주 데벙과 연결하는 안파사리 고속도로(총연장 21.6km)의 두 번째 구간이 지난 3일 개통했다. 향후 2주간 무료로 개방한다.

현지 언론 콤빠스 3일자 보도에 따르면 개통 구간은 섹션 2인 브리기프-사왕안 구간(Seksi II Brigif-Sawangan)로 6.3km이다.

데벙-안파사리 고속도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건설되고 있다. 섹션 1의 안파사리-브리기프 구간(5.8km)은 2018년 9월에 개통했다. 섹션 3(사왕안-보종 그테 구간, 9.5km)은 2021년 1월 개통을 목표로 한다.

운영 사업자는 찌뜨라 와스푸토휐와(PT Citra



Waspputowa)로 자카르타 시내 고속도로의 동부와 북부 구간을 운영하는 민간 고속도로 운영 회사 찌뜨라 마르가 누사팔라 빠르사다(PT Citra Marga Nusaphala Persada, CMNP)가 62.5%를 출자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코로나19 위기 속 중소기업의 시장접근성 확대 기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속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익창출을 도모하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불평등한 인터넷 접근성이 장애물로 거론되고 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꼬빠디아(Tokopedia)는 약 830만개의 중소기업(SME)이 있으며 대부분이 전자상거래 통한 사업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꼬빠디아의 윌리엄 설립자는 “대부분 첫 전자상거래 사업을 또꼬빠디아에서 한다”라며 “또꼬빠디아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중소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꼬빠디아는 작년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의 1%를 차지했다. 또꼬빠디아는 매일 9천만명의 잠재 고객과 기업들을 연결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1천만개의 중소기업을 디지털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인터넷 인프라가 우선 구축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부 데이터에 따르면 83,218개의 마을과 시골 중 15%가 4G 광대역 셀룰러 네트워크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리질 중소기업장관은 “자바섬 외 다른 지역은 아직도 인터넷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이다”라고 덧붙였다.

투자조정청, 143개 해외기업 중국에서 인니로 투자 이전 가능성 시사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미국과 대만, 한국, 일본, 홍콩 등 총 143개사가 투자처를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총액 792억 4,000만 달러 투자와 30만 4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현지 언론 인베스토르 데일리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BKPM 알마 카르마 국장(투자 홍보 개발 부문)은 “143개 국가·지역별 내역은 미국이 57개사, 대만 39개사, 한국 25개사, 일본이 21개사, 홍콩이 1개사이다” 라고 말하며 “이 가운데 7개사는 이전하기로 거의 확정, 17개사는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이 밖에 119개사도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다.

각각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전망은 7개사가 8억 5,000만 달러와 3만명, 17개사가 370억 달러와 11만 2,000명, 119개 기업이 413억 9,000만 달러와 16만 2,000명이다.

BKPM의 유리웃 국장(투자 규제 완화 부문)은 “인도네시아에서의 투자 재개를 밀어주기 위하여 4월 24일~7월 17일 동안 457개 2,603명의 외국인 전문가를 초빙했다. 이 중 155개사는 투자를 고려중인 기업이다” 라고 말했다. 457개사에 대한 투자 전망액은 총 859조 7,000억 루피아로 총 23만 7,269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공장 활동, 2분기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요가 급감하고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인도네시아의 공장 활동은 2분기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전체 생산량 및 신규 수주 등 모든 구성 요소 지수가 2분기 연속 하락했다.

생산물량 지수는 25.36%로 가장 낮았고, 주문물량 지수는 28.95%로, 재고물량은 32.28%로 가장 낮았다.

중앙은행의 신속제조지수(Bank Indonesia's Prompt Manufacturing Index, PMI-BI)에 따

르면, 2분기에는 모든 제조업이 하락했는데 섬유와 가죽제품은 물론 목재와 임산물에서 가장 많이 수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은행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감소는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 수요와 공급망 붕괴가 감소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위축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는 제조업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김승욱 코치와 함께하는 꽃청춘 프로젝트 8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하체 운동 스쿼트. 하지만 오랜 좌식 생활로 스쿼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갖춘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 스쿼트 시작 전, 다음에 소개하는 운동으로 운동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보자.



1. 루프밴드를 이용한 고관절 굴곡근 강화운동

1. 사진과 같이 루프밴드를 발 중간에 착용한다.
2. 양 발은 골반너비에 맞춰 선 상태로 코어에 힘을 주며 몸의 중심을 잡는다.
3. 한 쪽 무릎을 90도가 될 때까지 들어준다.
4. 밴드의 저항감을 느끼며 천천히 발을 제 위치로 내려주고 반대 발을 들어 동일하게 실시한다.
5. 동작 내내 코어 근육을 단단히 잡아주며 각각 10회씩 총20회 실시 해준다.

Point 골반 너비로 다리 간격을 유지할 것, 코어 근육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골반의 중심을 잘 잡아 줄 것. 제대로 따라 하면 아래 복부에서 허벅지 위쪽 근육에 긴장감이 느껴진다.

2. 누워서 다리들기(앞쪽 다리근육 활성화운동)

1. 두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한 쪽 다리를 지면에서 10cm 정도 들어준다.
2. 허벅지 앞쪽 근육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다리를 45도 정도 들어준다.
3. 앞 허벅지에 자극을 느끼며 한 다리에 30번씩 운동을 해준다.



Point 다리를 내릴 때에도 앞쪽 허벅지에 자극이 느껴지도록 한다.

3. 앞쪽 허벅지 강화를 위한 변형 런지

1. 앞쪽 다리에 체중을 많이 실어 준다는 느낌으로 선다. (이때 앞쪽 발에 체중을 70퍼센트 정도 실어 주면 된다.)
2. 무릎은 발바닥 중앙보다 약간 앞에 위치해준다.
3. 허벅지로 저항감을 느끼며 천천히 무릎을 굽힌다.
4. 3초에 걸쳐 내려가고, 0.5초 정지, 올라올 때는 2초 정도의 리듬감을 유지하며 동작을 반복한다.
5. 한 다리당 20번씩 3번 반복해서 실시한다.



Point

이 동작은 체중의 중심을 앞쪽 다리에 계속적으로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몸을 낮출 때 무릎이 과도하게 앞으로 나가지 않게 엉덩이와 무릎을 서로 반대방향으로 빼주는 느낌으로 앞쪽 허벅지의 자극을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



4. 앞쪽 다리 스트레칭

1. 한 손으로 발등을 잡고 반대 편 손은 위로 뻗으며 앞쪽 허벅지를 스트레칭 해준다.
2. 스트레칭 시 엉덩이에 힘을 주고 골반의 균형을 유지하며 무릎을 밀고 내리며 뒤로 살짝 보내준다는 느낌을 잡는다.

Point

균형 잡기가 어려운 분들은 한 손으로 벽을 짚고 하시면 됩니다.

Ryan 코치의 한 마디: 운동 프로그램은 고관절 굴곡근 활성화 및 강화 → 대퇴근 활성화 운동 → 대퇴근 강화 운동 → 스트레칭 순으로 짜여 있습니다.



빼찌(Peci)

헬론(Heylen)/ HOTEL GRAN MELIA

이번 8월호 「두 개의 시선」에서는 한국 교민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진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도 한 번 쯤 본 적이 있으실텐데요. 빼찌(peci)라는 검은색 모자이야기를 해 보려구요. 무슬림들이 공식 행사나 금요 예배를 할 때 이 빼찌를 항상 착용하고 있는데요. 빼(pe)라는 말은 ‘숫자 8’ 이라는 뜻이고, 찌(ci, chi)는 ‘에너지’ 라는 뜻으로 ‘8개의 방향으로 에너지를 뿜어내는 모자’라고 풀이할 수 있어요. 송꼭(songkok)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처음 들어보셨지요?(kosong dari Mangkok ‘비어 있는 그릇’) 우리의 삶이 비어있는 망꼭(움푹패인 그릇) 같다는 건데요. 삶을 지식과 은총, 지혜로 채워나가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또 다른 이름은 아마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꼬빼아(kopiah)’ 라고 하는데, 꼬빼(kopi) + 우야(uyah). 블랙커피와 소금(자와어로)이라는 건데, ‘커피와 소금이 무슨 연관성이 있나?’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네요. 피의 쓴맛과 소금의 짠맛을 구분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한다는 의미예요.

빼찌(peci)의 역사

1920년대부터 빼찌를 사용해 왔으니 꽤 오랜 세월이 흘렀네요.

빼찌는 국가 공식 행사나 결혼이나 마을 축제, 금요 예배, 할랄 비할랄(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 둘 피트리 명절 때 모두가 모여 서로에게 용서를 비는 시간을 가진다) 행사에서 꼭 착용해야 해요. 빼찌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빼찌를 착용하는 ‘인도네시아 사람’ 인데요. 종족과 인종에 상관없이, 빼찌는 행사에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지요. 중국계 유명인사인 ‘하리 타누수덱요(Hary Tanoesoedibjo)’ MNC 미디어그룹 회장이나 바수키(Basuki, 아혹) 자카르타 전 주지사도 빼찌를 자주 착용해요.



자바 문화가 깊숙이 베어있는 바틱도 좋지만, 한번쯤은 공식 행사에서 빼찌를 한번 착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외국인들은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의미로 바틱을 입기도 하지만, 무더운 날씨 속에서 조금 덜 덥고 편안하다는 이유로 입기도 하지요. 클래식한 색감이나 의미가 있는 모티브를 선택하기 보다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선택할 때가 많아서인지 가끔은 인도네시아 사람들 눈에는 ‘색깔 애매하다’, ‘모티브가 요상하군’, ‘왜 짧은 소매를 입었지?’ (아무래도 긴 소매가 공식 석상에서는 조금 더 예의를 갖춘 복장이니까요) ‘미스터리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역사속 인물 중에서는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이 이 빼찌를 유행시켰지요. 수카르노 대통령은 다양한 종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상징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수카르노 대통령은 빼찌를 벗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티셔츠를 입을 때에도, 사롱을 입을 때에도 항상 빼찌를 썼어요. 이후로 수하르토 대통령이나 하비비 대통령, 구수 두르 대통령, 유도요노 대통령, 지금의 조코위 대통령까지 빼찌를 즐겨 착용하게 되었지요.

여자들이 빼찌를 쓰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여자들도 빼찌를 쓰기는 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국기계양식 행사에서 남녀가 같은 모양의 빼찌를 착용할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행사에서 여자들은 전통복을 착용하면서 올림머리(sanggul, 상굴)를 해야 하다보니 빼찌를 자주 착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성들도 보이쉬한 느낌으로 빼찌를 한번 착용해본다면 멋지고 패셔너블한 느낌을 더할 수 있을 거예요. 남자들이 빼찌를 쓰면 30% 정도는 더 잘생겨 보이는 느낌을 주기도 해요. 키도 조금 더 커 보이고, 머리가 조금 벗겨진 사람이라면 빼찌로 가릴 수도 있고요, 자신감을 조금은 ‘업’ 시킬 수가 있는 거지요. 없던 카리스마가 갑자기 보일 수도 있고요. 수카르노 초대대통령이 빼찌를 쓰고 있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송중기 배우도 빼찌를 쓰고 찍은 사진이 있네요!



어떤가요? 긍정적인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나요? 머르데까!(merdeka, 만세!)

(번역: 민선희)



Twelve Chinese Dining (Menteng)



글: 주윤지(한국컨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여러분~안녕하세요☺ 어머니~벌써 8월이네요? 한국에서 8월달은 여름 휴가철로 한창 좋을 때이죠!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여행가기가... 짜잔~그래서 이번 호에서 준비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나뉘(?) 세계여행하기 특집! 제1편은 중국입니다. 이제 중국 여행 한번 가볼까요~슈웅☺

중부 자카르타 Menteng 지역에 새로 생긴 중식당 <Twelve Chinese Dining>을 소개합니다. ‘아~그냥 중식당이구만...’ 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십니다. 식당 입구에서 식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실 거예요. 식당 인테리어가 중식당답게 매우 화려합니다. 일단 식당의 층고가 매우 높고, 식당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12칸지들의 벽화와 동상들이 식당 내부를 감싸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테이블 배열도 독특하게 되어 있어 눈길을 끌죠~ 특히, 식당 중앙에 불뚝 솟아있는 두 개의 탑 안에서 식사하는 것은 마치 만리장성에서 텐트치고 배달음식 주문해서 먹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인지 이 자리는 경쟁이 치열해요...

자~이제 추천메뉴 소개 들어갑니다! 우선, Jasmin Tea Salt Baked Chicken in Lotus Wrap(220,000루피아++)는 꼭 주문하셔야 해요! 연꽃잎에 닭한마리를 감싸고, 자스민티 소금탕어리로 또 감싸고, 구운 치킨인 이 음식은, 보고 즐기고 먹는 세 가지 맛을 다 가진 대

표 메뉴예요. 처음 이 음식이 테이블에 나무 망치와 함께 서빙되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때, 종업원이 나무 망치로 구운소금 무덤을 부수라고 알려줍니다. 소금 무덤을 조심스럽게 타닥타닥 두드리면 그 안으로 연꽃잎이 빼꼼히 나타납니다. 어느정도 소금 무덤이 허물어지면, 위생장갑을 낀 종업원이 수술하듯이 연꽃잎 배(?)를 조심스럽게 가릅니다. 그러면 구운 치킨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하지만 바로 먹을 수 없어요... 종업원은 멋진(?) 퍼포먼스를 마친 뒤, 구운 치킨을 먹기 편하게 자르기 위해 주방으로 들고 갑니다. 소금구이 치킨 한번 먹기 참 힘드네요... 하지만 기다린만큼 보람이 꽤 큰 맛입니다. 닭가슴살이 껍떡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음식을 먹으면서 알게 될 정도로 정말 살이 야들야들해요~ 참, 함께 곁들여 나오는 소스맛도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은 Scorched Rice with Seafood Sauce(110,000루피아++)입니다. 일명 해물 누룽지탕이죠! 한국에서 중국집가면 가격과 양이 부담스러워 쉽사리 주문하지 못한 해물 누룽지탕을, 여기서 적당한 가격과 양으로 다소 부담스럽지 않게 드실 수 있으세요. 소스 전체를 누룽지에 부어 시간이 좀 지나서 먹어도 누룽지가 여전히 바삭바삭하게 유지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거기에다 새우, 오징어, 생선살 등 해산물도 꽤 듬뿍 들어있어요. 이 메뉴도 강추입니다!

그리고 Mapo Eggplant with Homemade Sauce with Somen(110,000루피아++)도 추천드려요. 마파두부 말고 마파가지 드셔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글썽 하지만 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다진 쇠고기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있는거예요 행복하게:) 소면도 얼마나 잘 삶았는지 쉽게 불지도 않아요~ 사알짜 중국식 짜장면의 느낌이 있는 마파가지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잠시나마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처럼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을 때, <Twelve> 한번 방문해 보세요! 일반 중식당에 비해 가격도 착한 편이에요☺ 참고로 예약은 필수입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 있어요~ 또 자축인모 진사오미 신유술해~♪♪ 자신의 십이지신 벽화 앞에서 사진 한 장 찰칵 찍으시면 여행느낌이 더 뽐뽐!!

슬프게도 코로나19가 우리 곁을 쉽게 떠날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럴 때 일수록 건강한 식단으로 건강 지키세요! 다음 호에서도 유익한 맛집 정보로 찾아 오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식당 정보 : Twelve Chinese Dining>

음식 종류 : 중식

가격대 : Rp 5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 11:00~15:00,
17:00~21:00

주소 : Jl. Dr. Kusuma Atmaja No. 5
Menteng, Jakarta

※ Zomato 참고



나는 바하사로 수다떠다

민선희

『유창한 회화를 위한 열공 인도네시아어 문법』 저자

‘그 사람 외국어 참 잘해’ 라고 평가하는 데에는 공통적인 평가요소들이 있겠지만, 인도네시아어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수동문을 적절하게 잘 구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도네시아 촬영 영상 속에서 통역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상황에 딱 들어맞게 수동문을 잘 쓰는지를 눈 여겨 보게 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언어 문화에 애정 어린 관심을 두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구나. 잘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번 8월호에서는 일상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바로바로 써 먹을 수 있는 수동문을 공부해 봐요. 그럼~ 바하사로 수다떠는 그날까지 열공~! 원리와 공식을 알면 문장이 술술~



원리와 공식을 알면 문장이 술술~

[1] 능동문의 주어/주체가 3인칭일 때

(인칭대명사 dia, mereka, 사람 이름 Pak Achmad, Ibu Sinta, Nurul)

◇ 능동문

고양이가	먹었어요	생선을
Kucing	makan	ikan

◇ 수동문 (피동문)

생선이	잡아먹혔어요	고양이에게
ikan	dimakan	kucing
“생선을 고양이가 먹어버렸어”		

[2] 능동문의 주어/주체가 1인칭/2인칭일 때

(인칭대명사 saya, kami, kita, Anda, kamu, kau, kalian)



◇ 능동문

저는	먹었어요	그 생선을
Saya	makan	ikan itu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느냐가 초점. 생선을 갖고 뭘 했느냐		

◇ 수동문(피동문)

그 생선을	저는(제가)	먹었어요
lkan itu	saya	makan
"생선을 고양이가 먹어버렸어"		

저는	(시간부사 자리)	고쳤어요(고쳐났어요)	에어컨을
Saya	sudah	memperbaiki	AC
넌 오늘 무슨 일을 했어? Tadi, saya memperbaiki AC. 아까 에어컨을 고쳤어요			

에어컨은/에어컨을	(시간부사 자리 고정)	제가	고쳤어요(고쳐났어요)
AC	sudah	saya	perbaiki
meN-접두사는 빼고			

(에어컨은/그건) 제가 고쳐났어요.

“에어컨은?” “Sudah saya perbaiki” 고쳐났죠. 이때 saya sudah memperbaiki AC 라는 능동문 형태로 즉각적인 대답을 하는 인도네시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제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

[신이나 Quiz TiMe]

(이메일 나한테 보낸다고 했던 거) 보냈어? Kamu sudah kirim email ke aku, belum? “보냈지” 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어떤 걸 쓰면 될까요? 대답으로 쓸 수 있는 문장을 다 골라보세요.

- ① Saya sudah mengirim email ke kamu.
- ② Sudah aku kirim kok.
- ③ Belum saya kirim.



- ④ Sebentar lagi akan ku kirim.
- ⑤ Saya akan mengirimnya besok.

>> 정답 : ①~⑤ 모두 쓸 수 있어요. 조금씩 뉘앙스는 다르지요.

>> 풀이 (질문) “Kamu sudah kirim email ke aku, belum?”

- ① Saya sudah mengirim email ke kamu. 난 너에게 이미 이메일을 보냈어.
틀리지 않지만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대부분은 “sudah” 로 충분한 답이 되기도 하고 지금 주제가 이메일이기 때문에 이메일이 어떻게 되었다를 초점으로 말해야 인니어가 더 팔딱팔딱 살아요.
- ② Sudah aku kirim kok. “보냈는데?” (Email itu) 를 생략하고 말한 문장.
(Email itu) sudah aku kirim. 그거 이미 보냈어 (너한테).
- ③ Belum saya kirim. (이멜) 아직 안 보냈어. 인도네시아어는 수동문이지만 우리말로 능동문으로 해석하죠. Saya belum mengirim(kirim) email itu. 이렇게 능동문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백프로 틀렸다고 할 순 없지만 again, 이메일을 주체어로 써야 효과적인 대화가 되거든요.
- ④ Sebentar lagi akan ku kirim. 좀이따가 보낼 거야. Sebentar lagi (email itu) akan ku kirim. 시간부사어를 주체자 앞에 먼저 써야 해요. “akan” (a)ku kirim 뒤에 나오는 동사는 접두사를 쓰면 안 되고요. Akan aku mengirim(x) 어근과(접미사)만. Akan aku kirim (o)
- ⑤ Saya akan mengirimnya besok. 이 문장도 맞기는 맞아요. 난 그 이메일을 내일 보낼거야. Akan saya kirim besok.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인 (수동)문이 되지요. 꼭 써보는 연습을 해 보세요. 연습할수록 쉬워져요. 언젠가는 생각 없이 툭툭 튀어 나올 거예요. 파이팅!

[3] 능동문 주체자가 3인칭- 인치대명사(dia, mereka)이거나 사람 이름으로 짧게 표두개 정도일 때 [1]번 규칙뿐만 아니라, [2]번 (saya, Anda) 규칙도 적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나면요~

1.	Mangga itu	dikupas	Tina
2.	Mangga itu	Tina	kupas
3.	Mangga itu	saya	kup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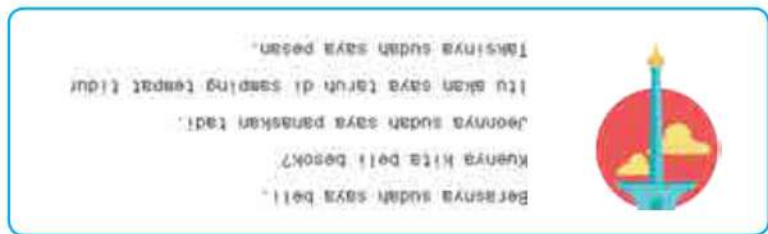
①그 망고는 떠나가 꺾았어요. ② 그 망고는 떠나가 꺾았어요. ③그 망고는 제가 꺾았어요.
 Mangga itu dikupas saya (x) 1인칭,2인칭 주체는(saya, kita, kami, kamu, Anda)
 절대 di- 수동동사를 쓸 수 없고 무조건 [2] 어순으로 해야 해요. 하지만 3인칭(인칭대
 명사dia, mereka, 사람 이름처럼 짧으면) [2] 어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질문!
 “짧으면” ? 그럼 길면 [2]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말인가용? 네 ^^ 비효율적인 문장이
 되어 버리거든요.

Mangga itu dikupas (oleh) seorang Bapak yang berbaju biru.
 그 망고는 파란색 옷을 입은 아저씨가 꺾었다. 이런 문장을 만들 수는 있는데,
 Mangga itu seorang Bapak yang berbaju biru kupas.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3인칭 주체자를 설명하는 말이 너무 기니까 ‘그래서 망고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서술어(kupas)가 너무 한참뒤에 나오게 되니까요. 끝까지 들어야 하잖아요.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야 하지만 인니어는 앞부분을 열심히 들어야 하죠 보통? Mangga itu dia
 kupas. 이걸 가능하지요~

퀴즈 하나 풀었으니, 이제 신이나 연습문제 타임!

(1)번은 제가 답을 드릴게요. (2)번부터 풀어보세요~

- (1) 쌀은 제가 사 왔어요. → Berasnya beli.
 - (2) 케익은 내일 살까 우리? → Kuenya besok?
 - (3) 전은 제가 아까 데워왔어요. → Jeonnya tadi.
 - (4) 그건 내가 침대 옆에 두려고. → Itu di samping tempat tidur.
 - (5) (택시) 예약해 왔어요. → (Taksinya) pesan.
- >> 신이나 연습문제 정답 (거꾸로 보세요)



다음 9월호에 이어서 대화 연습하기로 해요 ^^

☞ 인니어가 궁금하면? 여기로 nusantara817@daum.net

프로가 들려주는 생생Tip No 1.



패션 디자이너 김서연으로부터 듣는 패션디자이너가 되려면...

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땅그랑 BSD에 거주하고 있는 두 아이 엄마 김서연입니다. 둘째를 낳기 전까지 한국의 신성통상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했던 7년 차 만렙 패션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의류 벤더 회사에 다니는 남편이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인도네시아로 온 지 거의 1년 6개월이 되었네요. 신성통상은 섬유와 의류를 수출하고 유니온베이, 지오지아, 울젠, 폴햄, 탑텐, 탑텐키즈 등의 패션 브랜드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예요.

2. 패션 디자이너라면 어렸을 때부터 스케치북에 입고 싶은 옷을 그리거나 실제로 옷을 리폼하거나 만들어 입는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선생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궁금해집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도 말씀해 주세요.

저는 바비인형을 좋아하던 평범한 소녀였어요. 집에 있는 헌 양말과 옷으로 인형 옷을 만들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어요. 고등학교 때 동아리에서 스타일리스트 활동을 하면서 옷을 만들고 코디하며 무척 즐거웠어요. ‘내가 디자인한 옷을 사람들이 입는다면 어떨까?’ 상상하며 패션 디자이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의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3. 패션 디자이너로 선생님께서 실제로 회사에서 한 업무는 어떤 것들인가요?

회사에서 저의 직무는 캐주얼 여성복 담당 디자이너였어요. 매 시즌 패션의 흐름을 분석하고 기획해 디자인했어요. 옷을 제작하여 상품화하기까지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아 진행했어요. 보통 디자이너라고 하면 바느질과 재봉질을 직접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디자이너는 옷을 평면화하여 그림을 그리는 도식화 작업을 거쳐 패턴실로 보내요. 그 후 실제 원단이 아닌 유사 원단으로 시침질하는 가봉 작업을 거쳐요. 옷을 완성하기 전에 몸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바느질 작업해 해주시는 솜씨 좋은 선생님들이 따로 계세요. 디자이너 대신 재봉과 작업을 해주는 고마운 분들이지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옷이 나오면 디자이너가 Q.C(quality confirm)를 보며 더 예쁜 옷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번 핏(fit)을 수정해요. 실제 디자인에 쓰일 원단으로 옷을 만든 뒤 다시 한번 Q.C를 보고 상품 제작에 들어갑니다. 이밖에도 옷에 들어가는 그래픽, 부자재, 소재 선정 등 디자이너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아요. 보통 드라마에 나오는 패션 디자이너는 디자인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일을 처리합니다.

4.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할까요?

(트렌드를 읽는 능력, 창의성, 미친 체력, SNS 활용능력, 숫자 감각 등)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성복 디자이너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일단 체력은 기본입니다. 매 시즌 품평회를 하는데 이걸 통해서 시즌마다 판매할 상품들이 결정돼요. 옷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시즌에 판매할 상품을 선택하는 작업이 품평회인데 ‘야근의 시즌’ 이라고도 하지요. 제가 일 할 때는 대부분의 패션 회사에서 야근을 많이 했는데 패션업에 종사하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요즘은 일하는 환경이 많이 좋아졌대요. 당연히 패션 센스는 기본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파워포인트도 기본으로 다룰 줄 알면 더욱 좋아요. 또 적당한 눈치와 빠릿빠릿한 사람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5. 패션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신 적이 있나요?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면 좋을까요?

취업 전 삼성 <제일 모직>의 디자인 부서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단순한 잡지 카피나, 디자인실의 잔심부름을 하는 거였는데 값진 경험이었어요.

눈앞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들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설레는 마음에 “꼭 패션 디자이너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때 경험한 디자인실의 분위기와 일 처리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가 부족한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실무는 정말 달라요. 패션 디자이너가 꿈인 친구들은 꼭 패션회사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쌓을 것을 추천합니다.

6. 이 밖에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디자이너가 되려면 일단 옷을 많이 보고 입어보고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디자인한 옷을 더 잘 만들 수 있거든요. 자신이 남성, 여성, 아동, 스포츠, 데님, 란제리 등 어느 쪽의 패션 디자이너가 될지를 결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시장조사(백화점, 편집숍, 디자이너 브랜드 등)와 패션쇼에 참석하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매주 또는 매달 거의 모든 패션 회사에서는 디자이너들이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요.

그리고 또 하나. 디자이너의 필수 조건으로 자격증 취득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죠? 관련학과 전공자들이 따두면 취업하기에 유리한 자격증으로는 섬유산업기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 의류 기사, 패션 스타일리스트, 양장기능사 등이 있어요.

7.<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해당 영화는 비서학과와 패션 디자인 학과를 향한 지원동기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패션 디자이너의 세계를 현실감 있게 보여주는 영화나 드라마, 서적이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이네요. 패션 디자이너가 주인공인 직업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 책은 많지만, 실제 패션 디자이너들의 근무 환경을 리얼하게 보여줄 만한 작품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을 추천해 드릴게요. ‘팬텀 스레드’ (Phantom Thread, 2017)라는 영화예요. 패션 디자이너의 리얼리티를 보여주는 영화는 아니지만,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에 오스카 남우주연상을 세 번이나 받은 다니엘 데이루이스 주연의 은퇴작이기도 해요.

패션에 특별히 관심이 없던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어느 자리에서 “오늘 차려입은 의상이 꼭 보브렘멜 같네요.”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당시에는 그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해요. ‘보브렘멜’을 찾아본 뒤 그가 세련된 정장룩, 댄디룩을 상징하는 영국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패션에 관심이 생기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죠.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을 만나 영감을 받아 탄생한 캐릭터가 바로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주연한 ‘레이놀즈 우드콕’이라고 해요.

1950년 런던 왕실과 사교계의 드레스 (오트 쿠튀르, haute couture)를 만드는 디자이너와 모델의 사랑 이야기인데 서양 복식의 흐름과 시대적 특징이 있는 드레스를 제작하는 과정, 디자이너의 장인정신과 예민하다 싶을 정도로 섬세한 예술정신을 엿볼 수 있는 영화예요. 뛰어난 영상미와 음악도 정말 최고예요!



(인터뷰 진행: 이영미편집위원)

8. 패션 관련 일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머릿속으로 ‘파리의 패션 위크’를 떠올립니다. 화려한 세계에 발을 들이고 싶어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려는 학생에게 해 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패션 디자이너는 크게 두 분류로 나뉩니다. ‘기성복 디자이너’와 예술적 가치가 있는 의상인 ‘오트 퀴튀르’ 디자이너. 자신만의 개성을 디자인에 쏟고 싶다면 오트 퀴튀르 디자이너를, 개성은 조금 줄이고 대중의 니즈에 맞는 디자인의 흐름을 읽어 대중의 니즈를 맞는 옷을 제작하는 기성복 디자이너의 길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옷에 대해 관심도 많고 패션에 대한 지식과 감각도 풍부하죠. 이런 ‘거대한 물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개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한국의 패션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패션 산업을 주도하고 있어요. 한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해외 취업이 많아지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저 또한 첫 직장이 중국의 패션 회사였어요. 센스가 있으신 분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제2 외국어도 준비한다면 더 많은 기회를 찾아올 거예요.

평범하지 않은 일은 맞지만, 패션 디자이너가 화려하기만 한 직업은 아닙니다. 자부심도 컸지만, 업무에서 오는 회의감도 그만큼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닌 ‘열정’을 ‘창조의 기쁨’으로 바꾸고 싶다면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키워보세요.



9.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길은 크게 대학 진학과 전문학원 입학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려는 학생에게 어떤 방법을 추천하시는지요?

저는 대학 진학을 통해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패션 관련 학과 입학은 4년 동안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전공과목들을 공부하며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전문학원은 단기간에 디자이너 개인 창업이나 실무중심의 특성화 교육이 가능해요. 이밖에도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방법은 다양해요.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맞춰 진로를 선택하세요.

10. 아이들이 좀 큰 뒤에 다시 패션 업계에 복귀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패션 관련 일이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선생님의 인생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육아에만 전념하고 싶어요. 부모가 되어 아이들의 인생을 디자인하는 일은 저의 청춘을 바쳤던 패션 디자인만큼 값진 일이에요. 아이들을 돌보며 아동 미술과 동화구연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딸아이를 위해 아동 미술 지도사 자격증을 땀어요. 아이들을 키우며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패션의 흐름을 따라가기란 힘들어요. 안타깝지만 아이들이 좀 더 크면 패션 쪽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찾아볼 계획이에요.

11. 마지막으로 한인뉴스 독자에게 따뜻한 온도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선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교민 여러분에게 힘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예전의 덩 덩한 일상으로 돌아가 인도네시아의 거리를 걷고 싶어요. 그러다 마주치는 이름 모를 타인을 위해 열은 미소를 보내고 싶어요.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가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재외국민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프로님들이 들려줄 주옥같은 말씀을 기대해 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공동체 문화

‘콩알 한 개라도 나누어 먹는다’ 라는 말이 있다.’ 나눔을 중시했던 한국인의 삶의 방식을 잘 드러내는 속담이다. 새삼스럽게 ‘나눔’의 의미가 다시 강조되어야 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그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게 된다.

한국인 전통의 공동체적 삶

한국 근현대 100년 민중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가 바로 ‘나눔’의 장치인 공동체 문화가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인 전래의 삶은 공동체적 삶, 그 자체였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 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노동력이 부족한 여건은 민중으로 하여금 서로 돕고 살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힘들게 만들었다.

여성의 삶을 보자. 여성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길쌈이었다. 길쌈은 단조롭고도 지겨운 일이다. 그래서 여자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공동으로 길쌈하는 것을 두레길쌈·삼두레라 불렀다. 늦은 여름밤이나 겨울에 마을 여자들이 한자리에서 길쌈을 하노라면 우스갯소리도 하게 되고 길쌈노래도 부르며 신세 한탄을 겸해 일의 고달픔을 덜어보는 것이다. 주인집에서는 정성으로 차린 음식을 내와 여흥을 돋우어 주고 일의 신명을 추켜세워 준다. 내것 네것 없이 음식을 나누던 공동체적 삶의 전형이다.

남자들의 두레는 어떤가. 신농유업(神農遺業) 혹은 농자천하지 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쓴 두레기가 휘날리며 마지막 세벌 김매기를 매노라면 농민들은 신명이 솟구쳤다. 논독을 따라 큰애기(큰아기)가 점심 바구니를 내오는 옷자락이 보일라치면 총각들은 신바람이 나서 노래를 불렀다. 팽과리를 잡은 상쇠도 신명에 어깨춤을 덩실거리고 “저기 오는 저 처자야, 속눈만 뜨고서 날만을 보누나.” 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일과 놀이가 함께 갔던 두레의 옛 모습이다.

공동체 정신으로 함께한 노동의 의미

김매기를 공동으로 해나갔음은 물론이고 많은 장정의 밥을 해먹이려고 여성들이 총동원되어 참을 꾸렸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를 두고 ‘나눔의 밥상공동체’ 라고도 표현한다. 농민들은 항시 서로 돕고 사는 생활 속에서 두레·황두·소겨리·폼앗이·수눌음·접·계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생활을 꾸려 왔다. 계도 본래 취지는 공동체 정신에서 비롯되었다. 조금씩 돈이나 포목을 모아 두었다가 돌아가면서 어려운 일에 썼던 데서 계가 시작되었다.

장례나 혼례는 예나 지금이나 집안의 가장 큰 일이며, 마을에서는 공동으로 혼·상구를 장만했다. 상엿집이 있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마가 하나쯤은 마을마다 있었다. 큰일이 닥치면 술, 쌀 등을 들고 와서 공동으로 거들었다. 상여메기는 남자들이 총동원되어 합심하여 대처했으며, 무덤을 만들고 달구질을 하는 일도 공동 대처였다. 혼례식은 그 자체가 동네 축제였다. 마을주민이 모두 모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야말로 잔치를 열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노동은 폼앗이로 해결했다. 폼앗이란 ‘폼(노동력)을 앗이(교환)한다.’ 라는 뜻이니 돌아가면서 일을 도모했다. 가령 겨울철 김장도 폼앗이로 돌아가면서 해결했고, 새 벗길로 지붕을 이는 일도 폼앗이로 했다. 제주도에서는 ‘수눌음’ 이라고 하여, ‘수눌어 간다.’ 라는 말은 함께해 나감을 뜻했다. 이처럼 공동체적 노동 관행을 의미하는 뜻이 너무도 많아 모두 표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더불어 삶’ 을 통한 공동체 정신의 계승

한국사회는 근현대 100여 년간 급변했다. 무엇보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민족 지배라는 압제 속에 공동체적 가치관이 급격히 무너졌다. 6·25전쟁은 삶의 뿌리를 뒤흔들었으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풍토를 만들었다. 1960년대 이래 산업화는 서구적 삶의 양식을 급격히 이식시켰다. 개인주의의 발흥이 사회의 진보를 위해 필요한 측면도 많으나, 반면에 공동체적 삶이 급격히 와해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자본주의의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천민자본주의로 상징되는 황금적 가치관은 ‘나눔’ 이란 말 자체를 우습게 만들었다.

건강해진 공동체는 자신들에게도 되돌아간다. 나눔이 정착된 사회는 그야말로 건강한 사회다.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한국인의 삶 속에서 강인하게 전승되는 공동체의 DNA를 발견할 수 있다. 개인적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면서도 공동체적 ‘더불어 삶’ 이 공유되는 한국 사회의 균형 잡힌 미래를 꿈꾸어 본다.

글. 주장현 (국립해양박물관 관장)

인도네시아를 떠나며

사랑하는 한인 동포 여러분

이제 정들었던 인도네시아를 떠나 귀임하게 되었습니다.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재임하는 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간 지진과 홍수, 테러 그리고 금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마음 졸이던 나날이 떠오릅니다. 때때로 우리 한인들의 사고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리던 순간도 생각합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가 확산일로에 있는 가운데 한인 여러분들의 걸을 떠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아체에서 파푸아까지 인도네시아 곳곳에 있는 현장의 달인들을 만나 보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인도네시아 방방곡곡에서 우리 한인 여러분의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에서 늘 큰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두 해 연속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이뤄내면서 가슴 뿌듯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2018년 여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경기대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응원전을 펼쳤던 즐거웠던 순간도 기억에 남습니다.

오랜 협상을 거쳐 작년 11월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IK-CEPA)이 최종 타결됨으로써 앞으로 양국 간 경제 협력 증진에 새로운 동력이 불게 된 것을 보람으로 느끼며, 한인 사회의 숙원 사업이었던 발리 분관(영사관 역할)이 드디어 금년 후반기에 신설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일궈나가고 계신 한인사회 모든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한인사회가 인도네시아와 함께 더욱 발전하고, 한인 여러분 한분 한분이 건강한 가운데 하시는 일이 번창하길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간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기회가 닿는대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간 우정과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미력이나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축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립니다.

주인도네시아 대사 김창범



7월 23일, 언론협의회와의 마지막 오찬을 마치고 기념촬영

동포안내문

우리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안내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지 법률자문 회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회사명 : P.A.K. Law Firm (김민수 변호사)

○ 법률자문 내용

- 인도네시아의 무역·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세무, 회계 등 법률문제

○ 주의사항

- 불법 및 편법적인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자문은 이메일을 통해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상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리 기업 대상 법률자문서비스는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문으로 구체적 자문내용에 대해 대사관과 자문 법률회사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법률자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대사관 윤현숙 전문관에게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에 [법률자문] 명기)

○ 대표전화: (021) 2967-2555

○ 이메일: hsyun14@mofa.go.kr /끝/



공 고

인도네시아 한인동포가 함께 쓰는 '한인100년사'의 제목과 표지디자인을 공모합니다.

인도네시아한인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에게는 선물을 드립니다.

haninnewsinni@gmail.com



'Ya, Udah '

하승창 / 제 4회 적도문학상 :성인부 수필부문 최우수상

goldrag000@gmail.com



“Kenapa? What’s wrong?” 낮잠을 자다 깬 아내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 덩달아 깨어난 내가 놀라 물었다. 아랫배를 쓰다듬으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면서 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마침 주말이라 내가 아내와 함께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부랴부랴 아내를 차에 태우고 근처의 산부인과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조수석에 앉아 이를 악문 채 복통을 참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나는 괜찮을 거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얘기해 주었지만, 사실 이 복통이 의미하는 불길한 예감은 이미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을 먹구름처럼 뒤덮고 있었다. 병원에서 우리를 맞이한 의사의 모습은 화려했다. 번쩍이는 귀걸이와 목걸이, 그리고 양 손 열 손가락에 모두 빛나는 반지를 끼고 있는 그의 사는, 그녀가 걸친 새하얀 가운만 아니었다면 디너 파티에 참석한 상류층 귀부인이라 보아도 될 만한 외모였다. 초음파 검사기를 만지는 귀부인의 얼굴이, 검사대에 누운 슬픈 아내의 얼굴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흑백 모니터에 비친 화면속에는 바로 몇일 전 까지만 해도 또렷이 보였던 작은 콩알 대신, 칙칙처럼 검은 바탕위에 희끄무레한 잿빛 흔적들만이 새털구름처럼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다.

“유산입니다. 소파수술 해야 하니 입원하시죠” 아름다운 귀부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메마르고 차가웠던 그 말. 이미 나조차도 뭔가 나쁜 일이 벌어졌음을 느끼고 있었을 정도인데, 여자이자 엄마인 내 아내의 예감이야 오죽했을지 알고 있었지만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그러나 이번만은 제발 틀리기를 염원했던 그 예감이 사실로 확인된 순간, 아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아내는 수술 대신 하루간 입원실에서 몸조리만 하였고, 입원하는 날 제시 받은 엄청난 수술비를 거부했던 우리에게 다음날 대폭 할인된 수술비를 제안하는 귀부인을 뒤로 한 채 우리는 퇴원을 하였다. 아내와 나는 81년생 동갑이다. 자카르타에서 만나 1년간 연애 후 2015년도 봄에 결혼을 했다. 다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어서인지 나도 아내도 가족 계획에 적극적이었고, 축복 속에 얻었던 허니문 베이비는 그렇게 3개월 만에 우리 부부를 떠났다. 다행히 아내는 곧 건강을 회복하였고, 그 후로 얼마 동안의 슬픔을 이겨내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나는 몰랐다. 우리에게 닥칠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아이가 들어서지를 않는 것이다.

우리는 초조했다. 자카르타에서 제일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 그 중에서도 특히 불임치료 전문 의사와 일주일에 한 번 상담을 기본으로 하여,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 호르몬 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고 아내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아내는 매일 한 움큼 분량의 약을 처방 받아 먹었고, 내 부모님이 한국에서 용한 의원을 찾아 지어 보내주신 한약도 먹었다. 매일 체온계로 체온을 기록해서 배란일을 정확히 예측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그 때 처음 알았다. 내가 밖에서 저녁 약속이 있는 날과 아내의 배란일이 겹치는 경우, 나는 먼저 집에 와서 아내와 엄숙히 의식을 치르고 다시 약속 장소에 나가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매달 화장실 휴지통에 버려지는 한 줄 짜리 테스트기를 보며 우리는 지쳐갔다. 이리다 영영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우리의 정신을 힘들게 했고, 매일 매주 계속되는 약품과 주사와 각종 검사들이 우리의 육체를 피폐하게 했다. 결국 유산 후 딱 1년이 되던 때, 나는 아내와 마주 앉아 이야기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아이가 생길 것이고, 혹시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이제 그만 놓아버려. 우리 다시 신혼때로 돌아가서 마음 편히 사랑하며 살자.” 나의 제안에 아내는 잠시 망설였지만 동의를 해주었고, 그 날 이후 우리는 그간 해왔던 처방들을 모두 중단했다. 그리고 두 달 후, 아내는 눈물이 글썽이는 빨간 눈으로 나에게 빨간 두 줄이 선명한 테스트기를 보여주었다.

“Ya, Udah” 내가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을 가지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화를 낼 때마다 아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다. 예고도 없이 분테란 HI 로터리를 막은 경찰 때문에 차가 막혀 내가 짜증을 낼 때에도, 마트 계산대 앞에 늘어선 긴 줄을 두고 꾸물대는 점원을 보며 내가 화를 낼 때에도, 집사람은 “Iya, Udah” 라고 말한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래 더 말해봤자 소용없으니 너 좋을 대로 해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미 일이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어쩔 수 없다’ 또는 ‘내가 어찌한다고 바꿀 수 없는 일이니 받아들이자’ 라는, 인도네시아인들의 낙천적인 사고 방식 혹은 도가(道家)적인 무위(無爲)의 이치가 담겨 있는 문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돌이켜보면 내가 인생을 살며 저질러 왔던 많은 실수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 겪어야만 했던 실패들은 바로 이런 마음가짐의 부재로 인해 일어났던 것이 아니었을까?. 성공이든, 돈이든, 사랑이든, 집착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멀어진다고 하였다.



수상 소감 / 하승창

생애 첫 문학작품 응모에 이처럼 큰 상을 받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자유가 일상이 되어버린 갑갑한 시절이라, 펜 끝에서나마 얻을 수 있는 자유로움이 더 크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올해는 불혹이 된 제가 처음으로 겪는 일들이 유난히도 많은 해입니다. 며칠 전에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바짝 마른 7월 한여름, 지붕을 두들기는 콩 볶는 소리가 빗소리인 줄을 깨닫는 데에는 한참이 걸렸습니다. ‘불혹’ 이 아니라 ‘의혹’ 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때가 아닌가 합니다.

“사람을 멈추게 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체념이고, 사람을 나아가게 하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의지이다” 라는 책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인간의 그 어떤 의지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듯, 앞이 까마득한 절망과 체념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인간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지만, 과연 이 끝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 하는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의 졸작 ‘Ya, Udah’ 는, 거듭된 노력과 절망의 끝에 ‘놓아 버림’ 으로서 희망에 도달할 수 있었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입니다. 다만 신중함과 우유부단의 사이에 미묘하고도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듯, ‘체념’ 과 ‘놓아 버림’ 의 사이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해답을 찾아 나가는 우리의 여정에, 그리고 우리 의지의 한계를 시험 받는 이 시절에 끝이 있기를 바라며, 한국 문학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국 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치 더욱 갈망하고 더 많이 움켜쥐려 할 수록 손밖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 버리는 모래알처럼. 옛 말에 무슨 일이든 내 말은 일에 최선을 다해 충실히 임하되, 즐기는 마음으로 평정심을 유지할 때 비로소 행복과 성공은 소리없이 찾아온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Ya, Udah’ 라는 말은 체념과 포기의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여유로움과 평정심을 부르는, ‘놓아 버림’ 의 미학이 함축된 주문이다. 첫 아이 출산 후 별다른 노력없이 아내는 곧바로 둘째를 임신하였다. 평정심을 되찾은 덕분이었을까, 지금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그리고 보면 언제나 ‘Ya, Udah’ 를 말하던 아내가 1년 동안 몸 고생, 마음 고생을 했던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평정심을 잃고 조급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가보다. 여유로움과 평정심을 부르는 한 마디 주문. 주문이 검은 밤하늘을 수놓은 별처럼 내 마음에 아로새겨질 때까지, 나는 오늘도 조급한 마음이 들 때마다 소리 내어 말해본다. “Ya, Udah”

황정우(BIS G2) & 황다인(G8)



우리는 **파리** 피플 ~



‘자... 했다치고!’

#정우야생일축하해

#보조바퀴댈때날은좀잡아주는센스

#잘생뽕목도리도마뱀 #지도놓고세계여행

#공중부양이 쉬웠어요



좋아요 2383



근로자 정리 해고(1)

얼마 전 신문에 코로나 바이러스19가 경제에 미친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전국에 걸쳐 무려 약 3백 5만명의 근로자가 해고됐다는 기사가 있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한 해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근로) 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맺어지고, 맺어진 근로계약은 양자 간에 법이 되어 양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만국 공통의 법의 원칙이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전에 해고 통보를 해고가 발효하는 해고 통보제도를 이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으나,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국가로부터 해고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고허가 제도를 가진 나라들이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극소수인데 인도네시아는 이 극소수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이다. 한국인의 법정서로는 이해가 쉽지 않으나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의 강제성 때문에 근로자 해고에 관한 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고, 사직, 정년퇴직 혹은 근로자 사망 등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종결되는 것을 법령에서는 고용관계종결(Pengakhiran/Pemutusan Hubungan Kerja/PHK)로 부른다,

1. 고용관계 종결의 종류

고용관계는 누가 고용관계 종결시켰느냐, 즉, 고용관계 종결 주체에 따라, i) 사용자에게 의한 고용관계 종결, ii) 근로자에게 의한 고용관계 종결 및 iii) 법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이상 3가지로 분류된다. 근로자에게 의한 고용관계 종결(사직)시 분쟁 발생은 드물며, 법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역시 법의 강제성 때문에 노사양자가 다 받아 들이나 고용관계 종결 분쟁은 사용자에게 의한 고용관계 종결(해고)시 발생하는 분쟁이 대부분이다.

2. 근로자에게 의한 고용관계 종결

2.1. 무기한부고용계약(PKWTT) 상의 사직

근로자에게 의한 고용관계 종결의 형태는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은 무조건 사직과 조건을 달고 사직서를 제출한 조건부 사직이 있다. 조건부 사직은 사직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직이 발효한다. 무기한부 고용관계에서 근로자가 무조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 사용자는 i) 시행하지 않은 년가를 배상하고, ii) 최초 채용지까지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귀향비를 부담하고, iii) 3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장기근속금을 지불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56조 3항 장기근속금 계산 기준

- 3년 이상 6년 미만 근무 : 2개월분 급여액
- 6년 이상 9년 미만 근무 : 3개월분 급여액
- 9년 이상 12년 미만 근무 : 4개월분 급여액
- 12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 : 5개월분 급여액
- 15년 이상 18년 미만 근무 : 6개월분 급여액
- 18년 이상 21년 미만 근무 : 7개월분 급여액
- 21년 이상 24개월 미만 근무 : 8개월분 급여액
- 24년 이상 근무 : 10개월분 급여액

2.1.1. 사용자의 불법행위 혹은 고용계약 위반 이유 고용관계 종결 허가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 사용자가 다음에 열거된 행위 중 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근로자는 산업관계 분쟁해결 기구에 고용관계 종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타하거나, 거친 방법으로 모욕을 주거나, 위협한 경우
- 근로자에게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한 경우
- 급여를 3개월 이상 정해진 일자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와 약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고용계약서와 다른 일을 하도록 명령한 경우
- 고용계약서에 약정되어 있지 않은 일로 근로자의 생명, 안전, 건강 및 정조를 위협하게 하는 일을 시킨 경우

* 상술된 이유로 고용관계 종결이 허가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동법 제156조 2항에 규정된 해고금의 2배, 장기 근속금 및 년가 배상, 귀향비 와 해고금과 장기 근속금의 15%에 해당되는 의료비 및 주택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고용관계 종결허가 사유로 신청한 상술한 사용자의 행위가 산업관계 분쟁해결 기구에 의해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산업관계 분쟁해결 기구의 해고허가 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해고금 및 장기 근속금에 대한 권리가 상실된다. (사용자의 지불의무가 없어진다).

2.1.2. 장기 와병 사유 고용관계종결 신청
근로자가 와병 혹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며 유급 법정 시한인 12개월이 지나면, 근로자는 고용관계종결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법 제156조 2항 법정 해고금의 2배, 3항 법정 장기 근속금의 2배 및 4항의 제 배상을 받는다.

2.2. 기한부고용계약(PKWT) 상의 사직
기한을 정하고 고용계약을 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고용 계약 잔존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회사에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정 사항과 현실적인 처리에는 괴리가 있는 상황이다. 기한부 고용계약에는 해고금, 장기근속금 혹은 송별금의 개념이 없다.

3. 법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근로자 사망, 정년퇴직 혹은 산업관계 분쟁해결 기구의 판결에 의한 고용 관계 종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결과 정년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결은 고용관계 종결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지 않으나, 고용관계 종결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처럼 해고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3.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결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고용관계 종결시에는 유가족에게 제156조 2항에서 규정된 해고금의 2배 및 3항에서 규정한 장기 근속금 1배와 4항에서 규정한 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3.2. 정년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결

3.2.1. 근로자를 정년퇴직 프로그램(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제156조 2항에 규정된 해고금의 2배 및 3항에 규정된 장기근속금의 1배와 4항에 규정된 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3.2.2. 근로자를 정년퇴직 프로그램(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 전액을 사용자가 지불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제156조 2항의 해고금과 3항의 장기 근속금을 받을 권리가 없으나 4항의 제 배상금은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상술한 정년퇴직금의 액수가, 제156조 2항에 규정된 해고금의 2배 및 3항에 규정된 장기근속금의 1배 와 4항에 규정된 제 배상금을 합친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액만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인니문협 제4회 적도문학상 수상자 발표

- 대상 수상작 없음. 최우수상에 성인 수필부문 전현진씨, 하승창씨 공동 수상

한국문협 인니지부(회장:서미숙)가 주최하는 2020년 제4회 적도문학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응모기간이 길어 졌음에도 대상에 해당하는 작품은 배출하지 못했다. 대신 성인부 수필부문 전현진씨의 <늦그릇 원앙에 내리는 비>와 역시 수필 부문 하승창씨의 <Ya Udah>가 최우수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학생 및 청소년부 최우수상은 인도네시아인 데위(Dewy)의 <언어의 온도>가 최우수상으로 뽑혔다. 전현진씨와 하승창씨는 (사진 참조) 인도네시아 버카시와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로 이번 제 4회 적도문학상 수필부문에 응모해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주)인니한국대사상과 재인니 한인회장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해외 신인작가로 활동하게 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인 데위(Dewy)씨는 반등교육대학 한국어학과 학생으로 최우수상인 주)아세안대사상을 받게 된다.

제 4회 적도문학상 수필부문 심사를 맡은 권대근 문학평론가는 최우수상 당선작인 전현진의 <늦그릇 원앙에 내리는 비>는 문화가 다른 나라에 이주해 와서 겪게 된 문화적 충돌과 난관을 반성적 성찰을 통해 바로 세우는 작업뿐만 아니라 타자를 향한 이해라는 건강한 생각이 공감을 자아낸다고 했다. 특히 결말부의 여운은 주제를 상상화 하는 기능으로 큰 감동을 준다. 역시 최우수상을 받은 하승창의 <Ya Udah>는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정서적 교류를 그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다. 또한 청소년부 최우수상인 인도네시아인인 데위(Dewy) 씨의 <언어의 온도> 역시 외국인임에도 한글을 정확히 이해함과 동시에 문학적 작품성이 높다고 평가해 최우수상 선정 이유를 전했다. 또한 시 부문 심사위원장인 공광규 시인(문학박사)은 시 부문에서 대상을 내지 못해 아쉽지만 우수상으로 선정한 김은경(싱가포르)의 「민화, 붓질하다」는 형식이나 내용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내공이 있다. 긴 호흡이 믿음을 준다. 시인의



전현진씨



하승창씨



데위(Dewy)씨

가슴에 표현 욕망, 이야기 콘텐츠가 많이 내장되어 있다. 한국인이라면 모두 민화를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특히 이 시를 보면 우리가 전통예술에 대해 얼마나 걸핍기로 알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민화에 디테일한 지식이 시를 통해 서정적으로 우아하게 형상되고 있다.

2020년 제4회 적도문학상은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가 주관하며 어느덧 4회째를 맞았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무려 4개월 동안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 등 동남아 한인동포와 한국어를 공부한 현지인들의 수많은 응모작을 메일로 접수 받았다. 서미숙 한국문협 인니지부회장은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한국문인협회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여 한국문학의 발전과 보급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적도문학상 공모 취지 이율을 밝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4회 적도문학상 시상식은 올해 연말경으로 잠정 연기된 상태지만 이번 제4회 적도문학상 공모는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술라웨시, 수라바야, 반둥, 싱가포르를 비롯한 수많은 한인들과 한국어를 공부한 현지 인도네시아인들이 적극 참여하여 마감 날에 응모원고가 폭주하기도 했다.

'코로나19'의 암울한 시기임에도 동남아 예비문학인들의 문학적 관심도는 여전히 높다는 것을 실감케 하였다. 제4회 적도문학상 심사는 한국문협 인니지부의 예비심사를 거쳐 한국문인협회 위촉을 받은 권대근 문학평론가(한국문인협회 이사), 공광규 시인(문학박사)등, 한국문단의 권위 있는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평가에 의해 진행되었다.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2020년 제4회 적도문학상
★수상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성인 부문 / 수상자						
상 별	장 르	이 름	작 품 명	지 역	시 상 내 역	
2020년 대상 수상작 없음						
최우수상 (2명)	(주)인니한국대사상	수필	전현진	늦그릇 원앙에 내리는비	버카시	상장과상품
	재인니한인회장상	수필	하승창	Ya, Udah	자카르타	"
우수상 (4명)	재인니상공회의소회장상	단편소설	함상욱	WATI 이야기	땅그랑	"
	한국문협인니지부장상	시	김은경	민화, 붓질하다	싱가포르	"
	글로벌기업문학상 (PT. CIPTA ORION METAL)	시	신용주	자화상	마카사르	"
	동남아신문 한나프레스상	수필	이재민	땅꾸반 뿌라호 보다 고사리	자카르타	"
특별상(1명) JIKS 학교장상		시	강희중	그네	버카시	"
장려상 (4명)	한국문협인니지부상	시	이병규	남해 기행	자카르타	"
	한국문협인니지부상	수필	윤보은	8층 언니	자카르타	"
	한국문협인니지부상	수필	김신완	신 박소와 신 두부	반둥	"
학생 및 청소년 부문 / 수상자						
최우수상(1명) ㈜아세안대사상		수필	데위 (Dewy)	언어의 온도	반둥 교육대학	상장과상품
우수상 (4명)	꿈나무학교 이사장상	수필	오윤성	내 인생의 양념	ACS10	"
	재인니 한인문예총회장상	수필	로리타	철창문에 갇힌 자유	UI Depok	"
	한인포스트상	수필	다 니 엘 롤리스	제2의 새로운 삶의 변화	UI Depok	"
	글로벌기업문학상	수필	박주란	'너와 나, 그래서 우리	UPHC 11	"
특별상(1명) JIKS 학교장상		수필	안희찬	수마트라의 호랑이	JIS 9	"
장려상 (3명)	한국문협인니지부상	시	박재홍	망기스	SPH	"
	한국문협인니지부상	수필	한하은	아름다운 섬나라	JIKS 12	"
	한국문협인니지부상	단편소설	봉아 사파	이게 실화냐?	UI Depok	"

(기사제공: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

한국인이 그리고 쓴 인도네시아 귀신이야기

반 년 가량 작업한 우리 만화책 두 권이 그라메디아 전국서점에 깔린 건 올해 3월 9일의 일이다. 책 어딘가에 ‘인도네시아 괴담만화’ 을 뜻하는 Komik Horror Nusantara라는 대체목이 있지만 ‘Setan Lokal’, ‘Setan Urban’, 각각 ‘토착귀신’, ‘도시귀신’ 정도로 해석될 소재목이 빨강고 파란 표지 위에 오히려 대문짝 만하게 찍혔다.

본의 아니게 인도네시아의 괴담과 무속문화를 들여다보게 된 계기는 오래 전 빨랫줄에 걸린 것으로 보이던 친구를 도우려던 것이었지만 몇 년 뒤 귀신만화 스토리보드를 쓰게 된 걸 보면 좀 멀리 와버렸다 싶기도 하다.

인도네시아엔 의외로 한국만화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다. 아동 코믹 <빈대가족>(Keluarga Super Irit)이나 교육만화 <Why> 시리즈는 인기가 높다. 2019년 초 한국에서 온 청비스튜디오의 이태수 작가를 출판사 그라메디아 KPG에서 버전발로 반갑게 맞은 것은 부인 정현희 작가가 오래 전에 그린 공포만화 번역본들이 현지 스타디셀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계약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져 인도네시아 귀신 소재 공포만화 다섯권, 현지 위인만화 다섯권을 올해 안에 출간하기로 했고 그렇게 총 열권 중 첫 두권이 3월 초에 나온 것이다. 채색과 번역에 인도네시아인들도 참여했지만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만화책에 한국인 스토리작가와 만화가가 토착 귀신 이야기를 쓰고 그렸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 한권 당 20개의 에피소드를 담았다.

하지만 책이 나오고 일주일도 안되어 코로나 확산으로 전국 서점들이 석 달 가까이 문을 닫으면서 판매는 된서리를 맞았고 서가엔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았다. 참 운도 없다.

6월 중순 서점들이 다시 문을 열고 재택근무하면서 대체로 침묵하던 출판사들이 신간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세 번째 책인 ‘Setan Pesugihan’ 이 그림작업을 마치고 편집에 들어



배동선 작가가 스토리를 담당한 『Komik Horror Nusantara』 시리즈의 하나인 <도시 악마와 시골 악마>에 소개된 인도네시아의 귀신들 (출처: ‘한국 소설가가 말하는 인도네시아 귀신 이야기’ 페이스북 팟캐스트 화면 중)

가 8월 출간을 앞두고 있다. 번역하자면 ‘재물주술 귀신’ 쯤 된다.

하지만 총 열권의 계약 중 나머지는 출간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비단 그라메디아 뿐 아니라 현지 대부분 출판사들이 지난 3개월간의 매출절벽과 서점 영업재개 이후에도 고객들이 돌아오지 않아 비용절감을 위해 이후 출관계획을 전면 연기하거나 재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한국-인도네시아 합작 공포만화는 3권 60개의 에피소드로 일단 마무리되지만 외국인들에게 현지 외국어나 역사를 가르치는 한국인들처럼 인도네시아인들에게 그들 전통의 무속과 귀신이야기를 한국인들이 풀어주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특이점을 통과한 결과물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 배동선작가의 이야기

[중요] 코로나19 사무실 클러스터 주의

주인도네시아대사관(7.28)

1. 최근 자카르타에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사무실 집단감염(클러스터)도 일부 발생하는 등 감염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2. 사무실 클러스터 사례

- SCBD 內 EQUITY Tower의 G/F와 9층, 12층에서 4명 확진(7.10-24)
- CITI 은행이 있는 SCBD 內 Pacific Century Place 9층 확진자 발생(7.19)
- Central Senayan II 저층에서 확진자 발생(7.22 통보)
- Plaza Senayan 쇼핑몰 'Christian Dior' 매장에서 확진자 발생(7.25)
- * 정부 부처 사무실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자카르타에서 68개 사무실에서 440명이 확진됨.

3. 사무실 클러스터 예방 대책

- 인도네시아는 건물 內 확진자가 발생해도 해당 층과 사무실만 방역하고 전체 건물은 운영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딩 관리실도 확진자 발생시 해당 층과 사용시 주의해야 하는 E/V 정도만 공지하고 있는 상황이니 주의가 요망됩니다.
- E/V 탑승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내 창문을 개방하여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내 책상간 가림막 설치 및 책상 간격을 넓혀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인도네시아는 7.27.자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 한인 동포분들께서는 공공장소(공항, 호텔, 병원, 몰 등) 방문을 최소화하고 개인위생 및 보건수칙 준수에 더욱 유의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가 본 인도네시아의 이슬람문화

최재원(JIS 12, 학생기자)

‘천 개의 찬란한 태양’ 을 읽고...

‘천 개의 찬란한 태양’ 은 아프카니스탄의 현대사에서 두 여인의 참혹한 삶과 그 비극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생생히 묘사한 작품이다.

이 소설의 작가인 할레드 호세이니는 아프카니스탄 출신으로, 샌디에고 의과 대학을 졸업한 후 의사로서 활동하면서 틈틈히 집필을 하여 ‘연을 쫓는 아이들’ 이란 첫번째 장편소설을 발표했다. 이 첫 작품이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가 되었고, ‘천 개의 찬란한 태양’ 은 두 번째 작품으로 이 또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작가가 발표한 두 장편소설 모두 아프카니스탄의 비극적인 현대사에서 벌어지는 암울하고 암담한 상황과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주인공들이 살아남기 위한 투쟁과 희망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특히 ‘천 개의 찬란한 태양’ 에서는 극단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만행에 짓밟히고 고통 받는 여성의 삶이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특히 전쟁의 참담한 상황과 더불어 이해하기 힘든 시대착오적이고 극단적인 이슬람 문화는 답답함과 울분을 느끼게 한다.

예를들면 여자는 성인이 되어도 남편이나 그의 가족과 동행하지 않으면 혼자 거리에 나갈 수도 없고, 혹시라도 여자 혼자 다니다가 경찰에 잡히게 되면 매를 맞은 뒤 집에 돌아가야 하는 부분에서는 왜곡된 종교 체제의 악습이 느껴져서 아프카니스탄의 여성에 대한 측은함에 가슴이 아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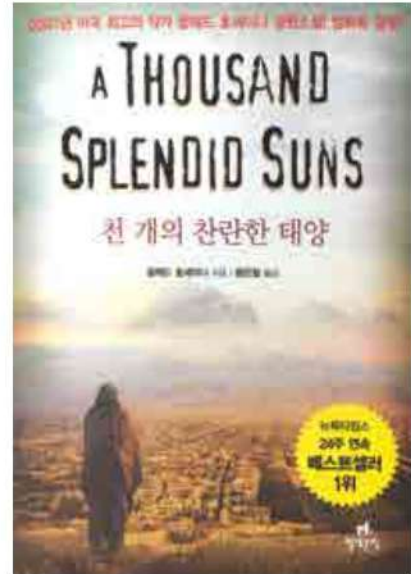
나는 어려서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를 접하며 성장했지만, 인도네시아의 온건한 이슬람 문화는 아프카니스탄의 그것과는 크게 차이를 재삼 확인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7%인 2억 2천만 명이 이슬람교를 믿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국민은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카톨릭, 불교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유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일종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에 본인의 종교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2대 대통령인 수하르토 정권 당시의 강력한 반공주의 정책 때문이었다고 한다.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강제로 개인이 종교를 선택하여 믿게 함으로써 무신론자인 공산주의자들을 배척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슬람 문화가 인도네시아에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3세기 경으로, 무슬림 상인들이 인도네시아 북부 지역인 수마트라 섬에 진출하면서부터였다고 한다.



이후 불교 및 힌두교를 믿던 왕조들이 멸망하면서 인도네시아 중심부인 자바섬까지 이슬람이 주요 종교가 되었고, 네덜란드의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전파된 기독교 문화와 기존의 종교가 섞이면서 인도네시아만의 독특한 이슬람 온건 문화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종교는 식민지 말기 시대에 독립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국민을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슬람교는 인도네시아 중심 사상이자 주요 종교로 자리잡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은 강성 세력들의 이슬람 율법을 기초로 한 헌법 제정 요구를 거절하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인도네시아 기본 정책인 **빠짜실라라**를 발표하는 등 이슬람 세력의 정치 참여를 막았다.

이는 다른 이슬람 국가와는 매우 다른 문화와 사회 현상으로, 실제 인도네시아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극히 드문 일이다.

그리고 만 7천 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넓디넓은 국토와 100여 개가 넘는 종족으로 구성된 엄청난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종교는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이슬람 종교의 교리는 하루 5번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모든 신자들이 자기 반성과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며, 1년에 한달 간의 금식 기간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등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정신적인 수양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천 개의 찬란한 태양’ 에서 보듯이 아프카니스탄을 비롯한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직도 여성들을 억압하고 사회적 진출을 막는 등 비상식적인 남녀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이슬람 문화에서는 이러한 남녀 차별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이미 국가 고위 공무원과 여러 공기업의 요직에 여성이 임명되어,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정치적인 참여를 노리는 이슬람 종교단체가 아직도 많은 시도를 하고 있지만 현재의 인도네시아 지도층과 사회 전반적인 문화는 온건 이슬람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네시아는 이런 문화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이슬람 국가로 발전할 것이다.

나는 ‘천개의 찬란한 태양’ 을 읽고, 다시 한번 왜곡된 종교와 정치의 문제점과 그러한 국가 체제에서 고통 받고 핍박 받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다. 앞으로 세계인이 지혜를 모아 이들을 돕고, 산재한 난제를 풀어 나가는 데 나도 한 몫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위풍당당 김은하 여사

박미소(G11)

유치원 교사를 꿈꾸던 커리어우먼

조용하지는 않았지만 선생님들 눈밖에 난 적 없던 저는 학교 생활에 적극적이었어요. 꽤 성실한 학생이었죠. 마음이 어려서 숙제를 보여달라는 친구들 말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공부도 잘해서 동성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고 이성 친구들에게도 고백을 많이 받았지만 친구와의 선은 지켜야 했기에 언행을 조심했어요.

유치원 때 선생님이 진짜 멋있는 분이었는데 그 분을 보며 유치원 교사를 꿈꾸었어요. 아이들도 워낙 좋아했고요. 유치원 교사를 꿈꾸던 저는 지금 레스토랑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힘들긴 해도 나름 보람 있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직업이에요. 40명의 현지 직원을 관리하는 건 녹록하지 않은 일이에요. 매출 관리도 힘이 들고요. 매출이 떨어지면 스트레스를 받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려 노력해요. 미소가 대학교에 입학하는 2년 뒤, 한국으로 가서 식품 영양학을 전공해 조리사가 되는 목표도 세웠어요.

강인한 여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시대 가장의 모습이 흔히 그랬듯이 아버지 역시 보수적이고 고지식하며 자기주장이 강했어요. 무뚝뚝한 성격 탓에 가족을 향한 사랑 표현도 서툴렀죠. 반면에 어머니는 자상하고 온유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여장부’ 스타일이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에게 엄격하게 가르치셨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도 사 남매를 키우기 위해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 야채를 파셨어요. 저녁이 되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시는 어머니에게 어리광을 부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또래보다 조금 먼저 철이 들고 세상을 알아갔어요. 흠만 만지던 농사꾼이셨던 아버지는

지인의 보증을 잘못 섰다가 논밭을 날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너덧 살 무렵, 고향을 떠나게 되었어요. 너무 어려서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터벅터벅 걷는 부모님의 뒤를 따라가는 내내 소리 내어 울지 못하고 울먹이기만 한 것 같아요. 몇 걸음 걷다 돌아보면 성냥갑처럼 작아지는 집과 흐릿해지는 길이 어찌나 안타깝던지. 하지만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면 안 된다는 걸 어렵듯이 알고 있었어요. 마음 속을 헤집던 바람소리만 기억나요.

타임 슬립이 가능하다면 그때의 어린 저를 안아 올려 위로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란다, 아가.”

그 일이 있는 뒤, 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나를 키운 건 팔할이 아르바이트

학창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고교시절 친구들이에요. 지금도 연락하며 지내지요. 고송자 선생님께서 제가 저의 어머니를 닮았다며 특히 예뻐해 주셨어요. 저를 믿어주는 선생님이 계셨기에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부모님께 고등학교



감사합니다

시럽합니다

입학금을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제가 번 돈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대학교 입학금까지 마련했지요. 하지만 대학은 얼마 다니지 못 하고 휴학을 하게 되었어요.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었다” 말하는 시인의 말을 빗대자면, 저를 키운 건 팔할이 아르바이트였어요.

일생일대의 도전

중학교 때까지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문제없었지만, 고등학교는 안 된다고 해서 야간 고등학교 지원하고 취업신청을 했어요. 3년 동안 독학하면서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여상 졸업 후 전문대에 지원하여 합격했어요. 그런데 고지식한 부모님께서 여자가 무슨 대학이냐며 허락을 안 했지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결국 꿈을 접고 취업을 하게 되었죠. 그래도 배움에 대한 끈을 놓을 수가 없더군요. 서른셋에 방송통신대학에 들어가 일년 뒤 교통사고로 휴학하기까지 목말랐던 공부를 실컷 했어요. 아쉬움도 크게 남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던 시기예요. 그리고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잘 챙겨주고 성실하며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인생은 실전, 육아는 현실

미래와 미소가 어릴 때 아프면 밤새 간호를 했어요. 밤 늦게까지 일하는 남편이 직원들과 술을 마시다 음주운전을 할까봐 걱정하느라 밤을 새기도 했죠. 잠든 아이들 모습을 바라보다 경찰차 소리라도 나면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불안했어요. 결혼 2년 뒤에 인도네시아에 오게 되었는데 남편은 동료들과 어울리느라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어요.

남편은 거나하게 취하면 곤히 잠든 아이들을 깨워 불에 뽀뽀를 하며 애정을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또 사회성이 좋아 직장 동료들을 집에 데려와 밥을 먹는 걸 좋아했어요. 육아에 지친 아내를 생각하지 못하는 남편이 야속해서 혼자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여유가 있었다라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스트레스를 풀었겠지만 그럴 형편도 아니었어요. 타국 생활이 서러운 이유 중의 하나로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꼽는다지요. 저 역시 인도네시아어도 잘 몰라 외출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감이 붙고 당당함을 찾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쉬는 날에도 만나자는 지인이 줄을 서네요. 그 어느 때보다 자신 있게 내 인생을 산다고 자부합니다.



소중한 나의 딸들에게: 인생은 끝없는 도전이란다.

좋은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어엿한 인격체로 자란다고 믿어요. 자존감 강해 나를 사랑하듯 남을 존중하니 인간 관계도 잘 맺을 수 있고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의’ 를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홀로 사시는 어머니가 걱정된 남편은 2010년에 먼저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아이들 특례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남기로 결정했어요. 본인도 힘들었을 텐데 여유가 되는 대로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왔어요. 가족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남편은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앞서 말했듯이 남편은 보수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만 아이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사람이에요.

국제학교를 다니던 둘째 미소가 한국국제학교로 옮길 때만 해도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순전히 저의 기우더군요. 공부에 신경을 쓰지 않는 듯 보이던 미래도 원하던 대학에 당당히 합격했어요. 꿈을 향해 한발한발 다가서는 아이들의 모습에 힘이 나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인도네시아에 남아 아이들 뒷바라지를 한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열심히 따라와 준 소중한 나의 딸들아, 고맙고 사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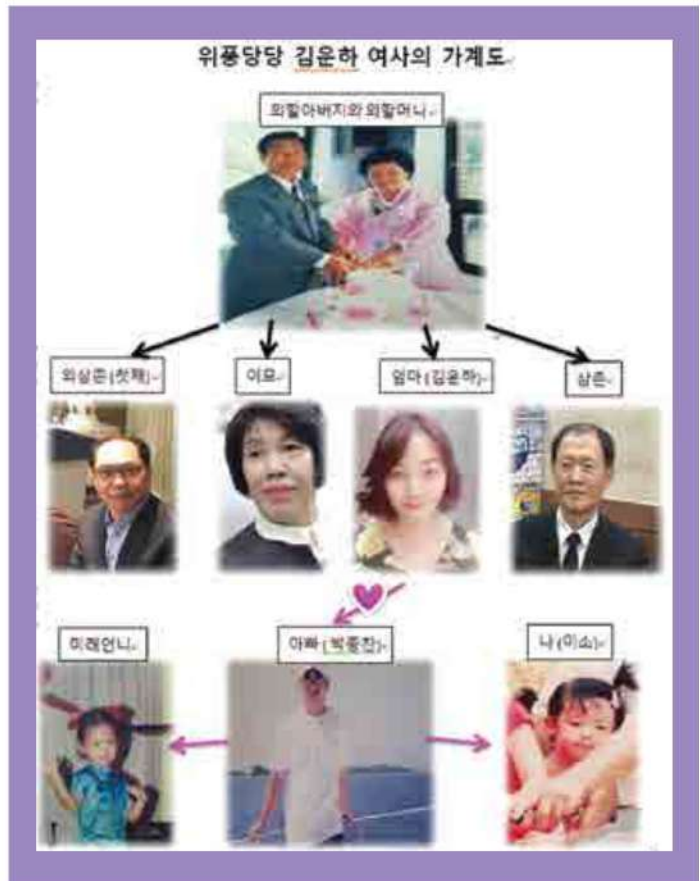
신이 내게 '미소' 지을 때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중요한 순간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제게는 힘이 되었고 지금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지금의 힘든 순간이 삶의 디딤돌이 되어줄 거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길 바라요. 물살이 거친 내를 건너다 징검다리가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고 눈을 뜨길, 미끄러워 중심을 잃을 때 자기 자신을 믿고 얼른 균형을 잡기를...

결혼이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의 인격체가 사랑이라는 믿음으로 묶이는 신성한 일이에요. 머리를 나풀거리며 뛰어놀던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모습이 아깝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배려와 이해,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자랐다고 믿어요.

인생은 100세 시대라지요? 두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 잘 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도 건강해야겠다는 생각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정말 멋진 가족 여행을 가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이 계획한 우리의 인생은 조금 더 멋지지 않겠어요?



코이카가 인니에 지원한 국민신문고, 현지서 국민소통 1번지로 정착

- 온라인 공공 민원창구 사업 추진해 코로나19 민원 2만 3천여 건 접수, 68% 처리 완료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 코이카(KOICA, 이사장 이미경)가 인도네시아에 구축 지원한 민원 신고 시스템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지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민신문고와 같은 국민참여형 거버넌스 발전 경험을 인도네시아에 전수하기 위해 유엔개발계획(UNDP),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와 손잡고 통합 민원체계 구축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해 온 성과다.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패 방지 및 근절을 위해 민원 신고 온라인 시스템인 '라포르(Lapor)'를 구축한 바 있다. 현재까지 7년간 어플리케이션, 문자 메시지(SMS),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약 159만 건, 하루 평균 616건의 민원이 라포르에 접수됐다.

※LAPOR(Layanan Aspirasi dan Pengaduan Online Rakyat): 국민 참여형 민원신고 온라인 시스템

과거에는 접수된 민원 중 실제 처리되는 비율이 네 건중 한 건(25%)에 불과했고, 민원 처리 권고 기간은 한국은 7일이나 인도네시아는 60일로 민원 접수인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지 못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민원대응 시스템이 분절되어 운영되어 효율성이 낮았다.

이에 코이카는 오는 2022년까지 라포르 중심의 민원 시스템을 선진화해 공공행정 분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민원체계 통합 운영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민원업무 관계자 역량강화 △라포르 참여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24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에 코로나19 방역물품을 기증하는 자리에서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라포르 앱을 통해 접수된 코로나19 민원 23,466건 중 68%인 15,956건이 처리되는 개선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관련 민원의 유형은 사회적 긴급 복지 신청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68%), 다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24%),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8%) 순으로, 현지 주민들은 코로나19 관련 고충 민원, 정책 제언과 건의사항을 실시간으로 라포르에 접수하고 있다.

특히 코이카는 지난해 사업 착수 이후 공공 민원체계 통합 운영을 위한 표준 업무 매뉴얼을 수립하여 코로나19 사태 직후 각종 민원처리 절차를 가속화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행정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변화함에 따라 코이카의 민원체계 구축 성과는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혁신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코이카는 이날 기증한 방역물품은 마스크 1만 개, 폐달형 손 세면대 500개, 자동분사형 손소독기 500개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기관 민원실 민원창구에 배포될 예정이다.

(제공: 코이카)



세균이 득실득실한 의외의 물건 4 가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개인위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종코로나는 사람 간에 전염되는 유행병이지만 다행인 것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감염병을 일으킨다. 세균은 스스로 외부에 있는 먹이를 몸속으로 받아들여 소화와 흡수를 하는 생물체다. 공기, 사람, 몸 속 등 먹이가 공급되는 장소에서 자체적으로 세포분열을 한다.

이에 반해 바이러스는 숙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감염성 입자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먹거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에 침투해 숙주 세포 내에서 효소를 이용해 물질대사와 증식을 한다.

세균도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하지만, 바이러스는 세균의 1000분의 1 크기로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세균은 항생제 치료가 가능하지만, 바이러스는 항생제로 죽일 수가 없다. 세균은 감염되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만, 바이러스는 복제 및 증식 때문에 반드시 잠복기가 있다.

이런 세균이 증식하거나 바이러스가 묻어 있기 좋은 물건이 있다. 그런데도 사용 후 잘 안 빨게 되는 물건이 있다. 이와 관련해 ‘야후닷컴’ 등의 자료를 토대로 세균이 득실거리지만 자꾸 깜빡하고 세척을 안 하는 물건을 알아본다.

1. 물병

직장인의 책상에는 물병이나 텀블러가 하나씩 놓여있다. 머그컵에 비해 병의 길이가 길고 입구는 좁아 세척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물로 대략 헹구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날 남아있던 물을 버린 뒤 곧바로 새 물을 담아 마시는 사람들도 있다. 정수기를 통해 필터링한 맹물이 담겨있던 병이라 더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입을 댔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물병에 입을 댔 순간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씻지 않은 물병에서 많은 양의 세균과 곰팡이가 발견됐다. 모든 세균이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물병에서 발견된 세균의 60%는 연쇄상구균처럼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종류였다. 물병에 남은 물은 항상 버리고 따뜻한 물과 세제를 이용해 깨끗이 씻어야 한다.

2. 요가 매트

매트에서 운동을 할 때 땀을 흘리지 않았다 해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어야 한다. 다공성 물질로 된 매트의 특징과 맨발과 손에서 나온 노폐물이 결합해 각종 세균을 번식시키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요가 매트를 사용한 뒤 발바닥에 물사마귀나 발진이 생기는 등 피부병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다. 이는 매트의 청결 상태와 무관하지 않다.

3. 주방 수세미

주방에서 사용하는 스펀지는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통틀어 세균이 가장 많이 기생하는 물건 중 하나다. 연구에 따르면, 주방 스펀지에는 362종의 서로 다른 세균이 기생하며 cm^2 당 450억 마리

가 살고 있다. 이 만큼 밀도 있게 세균이 기생하는 공간은 드물다.

전자레인지에 스펀지를 돌려 세균을 제거하는 방식이 추천되지만 일부만 박멸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스펀지로 교체하는 것이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세균의 숫자를 줄이고자 한다면 3~5일에 한 번씩 30초간 돌려야 한다.

4. 메이크업 브러시

여성의 화장 도구는 주로 아침에 사용된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고 나서 사용할 일은 거의 없다. 그렇다보니 세척하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게 된다. 아침이면 생각나지만 서둘러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브러시를 빨고 있기란 쉽지 않다. 브러시는 화장품과 피부 유분기, 각질 등이 세균과 함께 엉겨 붙어있다. 브러시를 세척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세균 배양하는 접시가 돼 피부트러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연구에 따르면, 세균은 메이크업 브러시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번식하며 이는 모공을 막고 피부에 흠집을 내며 여드름을 악화시킨다. 하지만 메이크업을 하는 여성의 72%가 정기적으로 브러시를 세척하지 않는다.

메이크업 브러시는 적어도 2~4주에 한 번 빨아야 한다. 실온의 물에 샴푸를 풀어 비눗물을 만들고 브러시를 담근 뒤 30초간 세차게 휘젓는다. 그 다음 흐르는 물로 헹군 뒤 깨끗한 수건 위에 올려 다음 말리면 된다.

권순일 기자 kstt77@kormedi.com

저희 오픈했어요!

BALI

ULUWATU

COLLECTIVE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리 울루와뚜에 크로스핏 및 그룹 트레이닝 전문 체육관인 Uluwatu Collective를 오픈한 정창훈 관장입니다. 우리 체육관은 전체 400평방미터 규모이며 운동 공간 외 운동 전후 커피, 단백질 셰이크 등의 음료와 간단한 건강식사를 즐길 수 있는 라운지 그리고 항상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실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발리 울루와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가는 쿠타, 스미냇, 쟁구 구역에 비해 조용하여 주로 휴식을 취하면서 주변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으며 특히 다양한 높이의 파도가 있어 초급부터 상급자까지 울루와뚜 한곳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크로스핏 운동은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 헬스장의 운동과는 달리 파워리프팅의 '최대 근력', 역도의 '파워', 육상의 '스피드', 기계 체조의 '협응력' ... 등의 운동들을 반복적으로 행하며, 지구력과 근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어 체력향상, 다이어트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코로나19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체의 면역력을 향상에 최고의 운동입니다.

발리에 방문하시거나 거주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려서 같이 운동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방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081 338 964 258

charlie@uluwatucollective.com



2020. 7

Go-Car 드라이버 Bpk. Suhendar (50세)

이 보호막은 2달 전 회사가 내 차에 우선 설치해주었는데 많이 안심이 됩니다. 아마 주 6일 24시간 일해 성적이 좋았던 것 같아요. 고카 골든타임은 새벽 1~4시로 찾는 승객은 많은데 대기 차량은 적잖아요. 코로나 전보다 수입은 좀 줄었지만 월 9백~천만 루피아는 됩니다. 그 대신 컨디션 조절을 아주 잘해야 돼요.

전에는 한국 봉제회사에서 오래 운전했어요. 사장님이 귀국하시면서 독립했지요. 사장님 가족과 회사 직원 모두 친절하고 좋으신 분들이라 일은 힘들어도 즐거웠어요. 퇴사시 특별 보너스도 듬~뿍 받고 ... 정말 감사하지요.

아내가 작은 와룽을 하고 있어 운전이 힘들어지면 같이 일하며 노후를 보낼 겁니다. 우리 가족의 희망! 예쁜 두 딸을 잘 키우고 싶어요. 특히 큰딸(21세)은 의대 공부 중으로 졸업 후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건강하세요 ~



2020 임원잔조금 납부명단

기준 : 2020.1.1.~ 7.29

번호	성명 및 직책	회사명	금액		비고
			루피아	달러	
1	채만용 자문위원	PT. CITRA BINA MAJU JAYA		1,000	
2	김동석 이사	PT. DUNIA TRANSPORTASI LOGISTIK	14,000,000		
3	구종율 자문위원장	PT. JASINDO DUTA SEGARA	28,000,000		
4	김종희 이사	PT. YOUNG JIN INDONESIA	14,000,000		2019
5	강호성 부회장	PT.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70,500,000		2019
6	김소웅 자문위원	PT. SCI	14,000,000		
7	김종화 이사	PT. ART MOLD INDONESIA	14,000,000		
8	이해왕 이사	LEE & OH CONSULTING INDONESIA	14,000,000		
9	김재정 이사	PT. ZEUS COMPONENT INDONESIA	14,000,000		
10	강선학 부회장	PT. ALPHA TOY INDONESIA	70,500,000		
11	김우진 고문	PT. SAMINDO ELECTRONICS		5,000	
12	박재한 회장	PT. BUSANA PRIMA GLOBAL		20,000	
13	조호신 이사	PT. NEMO INDONESIA	28,000,000		2019 ~ 2020
14	장영관 이사	PT. SURYA MOLD TECH	14,000,000		
15	정창섭 이사	PT. DAEWOO LOGISTICS ASIA		1,000	
16	손광주 이사	PT. POSCO INTERNATIONAL INDONESIA	14,000,000		
17	유용선 이사	PT. DAE HWA INDONESIA	14,000,000		
18	양시완 이사	PT. KISWIRE INDONESIA	28,000,000		2019 ~ 2020
19	김영만 자문위원	PT. BATAVIA CHEMTEK	13,700,000		
20	길병완 이사	PT. DAEYOUNG DUNIA SUBUR	13,700,000		
21	김경곤 이사	PT. SUKWANG INDONESIA	13,700,000		
22	김인기 이사	PT. INDOCORE PERKASA	13,700,000		
23	김호권 이사	PT. SUNSHINE TECHNICA INDONESIA	13,700,000		
24	노태진 이사	PT. SILLA ENGINEERING INDONESIA	13,700,000		
25	서영률 이사	PT. PRATAMA ABADI INDUSTRI	13,700,000		
26	이정호 이사	PT. HEONZ ROYAL JAYA	13,700,000		
27	정용완 부회장	PT. HUNG A INDONESIA	70,000,000		
28	조규철 자문위원	PT. DONG JUNG INDONESIA		1,000	
29	승범수 부회장	PT. KORIND GROUP		5,000	
30	김희중 이사	PT. JKI CONSULTING	13,700,000		
31	이완주 이사	PT. PERTIWI INDO MAS	13,700,000		
32	엄정호 자문위원	PT. ING INTERNATIONAL	13,700,000		
33	오세명 자문위원	PT. SUNGLIM CHEMICAL	13,700,000		

번호	성명 및 직책	회사명	금액		비고
			루피아	달러	
34	김일태 이사	PT. OROM	14,000,000		
35	양태화 이사	PT. BOSUNG INDONESIA	13,700,000		
36	유진상 이사	PT. DAE BAEK	13,700,000		
37	김영욱 자문위원	PT. GAYA INDAH KHARISMA	13,700,000		
38	강형구 이사	PT. MERITZ KORINDO INSURANCE	13,700,000		
39	김형근 이사	PT. GAYA INDAH KHARISMA	13,700,000		
40	최정남 자문위원	PT. GLOBAL FIBERINDO	14,000,000		
41	이명균 이사	PT. HIJAU ELEKTRONIKA INDONESIA	13,700,000		
42	이상일 이사	PT. UNGRAN INDAH BUSANA	13,700,000		
43	이정휴 부회장	PT. GEE SAN INDONESIA	69,750,000		
44	유주완 이사	PT. FEEL BUY INDONESIA	13,700,000		
45	권희정 이사	PT. SAMIC INDONESIA	13,700,000		
46	박성대 부회장	PT. HANJIN INDONESIA	70,000,000		
47	하재수 부회장	PT. ROYAL PUSPITA	70,000,000		
48	김옥준 이사	PT. BSI MANAGEMENT (BSI GROUP)	13,700,000		
49	양영연 명예고문	PT. TAEWON INDONESIA	70,000,000		
50	이현상 자문위원	PT. ROYAL KORINDAH	13,700,000		
51	이진수 고문	PT. SUNGBO JAYA	70,000,000		
52	김준규 고문	PT. CIPTA ORION METAL	79,700,000		
53	강희중 자문위원	PT. SUNG TECHNOLOGY		1,000	
54	백인현 이사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3,700,000		
55	김영주 자문위원	PT. DEWA CITRA SEJATI	13,700,000		
56	석웅치 자문위원	PT. DAYUP INDO	15,000,000		
57	배응식 자문위원	PT. KORSIA BOAN PERKASA		1,000	
58	권천년 부회장	PT. FARMSCO FEED INDONESIA	75,000,000		
59	신기엽 명예고문	PT. HANINDO EXPRESS UTAMA	70,000,000		
60	신호진 이사	PT. HANINDO EXPRESS UTAMA	14,000,000		
61	이광욱 부회장	PT. YUNI INTERNATIONAL	70,000,000		
62	이철훈 이사	PT. INDO BOX UTAMA JAYA	14,000,000		
63	차상현 이사	ASIANA AIRLINES INC	13,700,000		
64	노예범 이사	PT. SAM PUTRA INTI	13,700,000		
65	김희익 자문위원	PT. ESP INDONESIA	14,000,000		
66	박주상 이사	PT. TOU RUBBER INDONESIA	13,700,000		



인도네시아투자자문센터 YSM & PARTNERS 법률사무소

투자자문. 소송. 기업법무. M&A. 인허가. 부동산. 자원. 귀화. 지식재산권

대표변호사 이승민(YI SENG MIN, SH., MH.)
MP 0816-1911-245. yisngmin@gmail.com

무료 법률 및 투자 상담. Free Legal & Investment Consulting
-화요일 오후 2시-4시 Jakarta KOTRA(Tel. 021-5790-5230)
GKBI 8th Floor, Jalan Sudirman No. 28, Jakarta Pusat
-주말 오전 10시 15분-11시 45분 한인연합교회
Jalan Wijaya I No. 41,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Korea Center Building Suite 202-203
Jalan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Tel. 021-525-5959, 527-2422,
www.indonesialawyers.id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3/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	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세무상담은 텍스트로

세무사/AFPK자격인증자 **이희영**

대한민국세무관련조력/비거주자,
거주자판단자문 등

대한민국세무상담 환영

• 주요업무 •

세무조사전문
조세불복전문
기장신고대리
양도상속증여
세무컨설팅

• 주요경력 (국세청 17년 근무)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근무
강서세무서, 영등포세무서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조사과, 법인세과, 재산세과 등 근무

(07807)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68 마곡747타워 602호(마곡역
6번 출구)
T +82-2-2662-7476
F +82-2-2664-7473
M +82-10-6599-7476
E taxlow7476@naver.com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헌)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um@gmail.com T:(021) 4585 4910
 한국인 Kicaz ID: indoo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oty1991@gmail.com (021) 4585 4207
 visa.orumchina@gmail.com

woori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재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URI → 우리투어

Tel : 021-794-0422 / 021-7919-9201
HP : 0811-1742-081
Kafalk ID : uritour88
Email : master@uritour.org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래는 나의 거울이고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해와 별과 별을 다해 찾아볼 것입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05,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007 | www.doowang.net
E-mail: tw@doowang.co.id | teec@do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데미와 함께하면 즐거움을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운)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9 555 3456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분옥)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중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58 76506040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운)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중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송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쥬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울매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강식품/건강원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형사 · 민사 · 세무 · 투자 · 국적

김종성(변호사/ 대표Partner): UI대 법대졸, UI대 법대 대학원졸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한국건강원 5579 6411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킴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킨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방송사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365OPEN CLINIC 위자야 점 2793 2625
 끌라빠가딩점 2245 8015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 의사 정혜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본점 722 2214
 끌라빠가딩점 021 723 3214
 무궁화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뽕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쥬레곤점 054-987 1049
 무궁화반동점 028-8200 1674
 무궁화족자점 0815 4880 0256
 무궁화마카사르점 0811 460 678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교민여러분과 25년을 함께 해 온
 가구 인테리어 전문회사



로만인테리어

사무실/아파트/주택/매장/업소
 공장/기숙사
 가구, 키친세트, 인테리어
 각종 리노베이션 상담

Showroom/Office
 J. RS Fatmawati No. 21A, Cipete Jakarta Selatan
 Tel: (021) 766 2519 한국인직통 0811-847-699
 카톡 ID: limbs521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김군

고기고기
 밴드(김군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



테일린 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3 3315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카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	722 1852
소래포구	8990 5051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양가든	2751 7370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깜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아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요리가	4584 4502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조선일보	2930 6886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시티안경원	726 5009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18 4239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람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Inko Batam(바뎀)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9593111		
-------------------	-------------	--	--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테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람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	------	--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수출·무역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ira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복궁 하숙(리브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브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밭	830 9990
한올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학원/교육업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에세드라아트스쿨(리브찌까라와찌)	546 4531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날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98 6112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얏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장	453	1166
사감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DREMLAND TOUR	745	1961
KOURUS TOUR	744	72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AN TOUR	703	479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L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ANUR)	918	1888
부가	805	1212
한일관	727	250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ISIS (NUSADUA)	770	256
ISIS (SANUR)	287	257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BALI TEGEHE AGUNG	298	643
SUN JEWELLERY	761	537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 동 (지역번호 022)

반동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동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어떤 모양을 통해
목적한 기능과 역할다용을
추구하는 것이 디자인의 본질 아닐까요?
디자인이라면 뭘든지 해결해드립니다!

PT.EOK ECO INDONESIA

**인 테 리 어
익 스테 리 어
경 관 조 명
간 판**

- 디자인 / 설계 / 제작 / 시공 -
Tel. 021-7919-2426
M. 0852-8511-3888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지역한인회

현재 2020. 7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발리한인회 [0812-3793-9452]"	회장	윤 경 희	0811-3858-41
		수석총무	최 경 희	0812-3806-288
		총무	송 학 자	0812-3623-000
		총무/영사협력원	이 태 우	0812-3793-9452
		영사협력원	김 갑 수	0811-3945-52
2	"반둥한인회 [022) 200-2154]"	회장	편 대 영	0813-2145-7997
		사무국장	박 병 봉	0813-2150-5500
		사무차장	윤 병 렬	0811-210-4622
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수석부회장	주 정 만	0812-704-5030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4	보고르한인회	회장	이 철 훈	0811-112-179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메단한인회	회장	홍 상 철	0811-608-724
		총무	손 근 환	0812-655-9418
6	수카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111-5208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7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8690]"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수석부회장	김 태 현	0818-321-332
		사무국장	우 상 화	0817-500-1042
		총무	배 기 보	0812-3251-5518
8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024) 7648-2020]"	회장	유 성 천	0812-286-7994
		수석부회장	임 중 학	0813-2525-7777
		사무총장	문 성 구	0811-275-080
		수석총무	양 재 삼	0812-9323-8002
9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유 치 호	0813-9251-5050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0	즈파라한인회	회장	김 신	0812-2991-588
		수석총무	조 영 성	0813-9032-3355
		총무	양 세 환	0822-2719-9135
11	"땅그랑반뜰한인회 [0821-8166-6137]"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18-660-732
12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	이 재 호	0811-444-190
		총무	한 정 곤	0811-419-200
13	롬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14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정 성 화	0821-5497-9998
		수석부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총장	배 성 운	0813-7180-6330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실명 위기의 김모씨(53세, 끌라빠가 당 거주)에게 눈수술을 위한 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한인회는 김모씨가 2016년 8월9일 출국하여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인구조단(사단법인 월드케어)과 연계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이렇듯 한인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한인동포들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회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THEP

TRASINDO

SAMINDO

STI

PSG

CEP

ST International

Synergy for Tomorrow

삼탄이 ST International 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SBS

DONGHAE

SIMS

Yeong Yang
Wind Power

MINTEC

SRT

SRT

ALSA

KIDECO